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말씀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 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니라
(마가복음 16:37-38)



금주의 기도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살리셨음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하는 축복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제 1379호 2012년 4월 7일 (토)
사시 :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건보 개혁독소 조항, 종교적 자유침탈!

CT, 2011년 이후 오바마 행정부 정책 시간대별로 보도

재선가도를 향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진영에게 복병들이 버티고 서 있다. 그 중 하나는 이제 연방대법원에서 심리를 기다리고 있는 '오바마 헬스케어'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건강보험에 관련된 피임적용 의무화 정책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1년 들어서부터 여성들의 피임 적용과 낙태에 지나치게 관대한 정책들을 펼쳐왔다. 물론 진보 성향의 대변자로서, 여

성들의 인권과 건강을 위한 정책이라고는 하지만 종교적인 자유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라는 가락으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공화당에서는 예비 주자들의 대선 경쟁이 언론의 초점을 받는 것처럼 오바마 정권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다른 아닌 건강보험에 관련된 지나친 피임적용과 낙태로, 이는 미국의 종교적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따라서 크리스천티니 투데이(Christianity To-

day, CT)는 2011년부터 불거져 나온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들의 어떻게 종교적인 자유에 위협을 주고 있는 지에 대한 시간표(time line)를 정리해서 보도해주고 있다(Time line: Obama Administration Actions Affecting U. S. Religious Freedom: How we got to the current religious liberty debates over contraception and other issues).

지난 2월 오바마 대통령은 건강보험(건보)에 반드시 피임적용 의무화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는 행정 명령을 발표했다. 그러나 낙태와 피임에 전통적이고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는 가톨릭 진영의 눈치 때문에 수정과 보완을 결단여 개정된 명령을 내놓았다. 이러한 수정에도 불구하고 백악관과 가톨릭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즉 오바마 대통령은 가톨릭 병원, 대학 등 단체들은 피고용인들에 대한 피임 보험 적용 의무화 대상에서 예외로 한다고 발표했지만 가톨릭은 피임 보험 적용 정책의 전면적인 폐지를 요구하며 원칙적 입장을 고수했다.

미 가톨릭주교회의(USCCB)는 오바마 대통령이 보완책을 발표한 몇 시간 뒤 성명을 통해 "정부가 내놓은 새로운 대안은 여전히 종교기관 내부 문제에 대한 불필요한 정부의 간섭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주교회의는 "종교의 자유를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원칙으로 규정 한 나라에서 이 원칙에 대한 문제를 놓고 타협이 이뤄져서는 안된다"며 "종교적 자유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정부가 이번 건보 의무화조



2012대선 복병으로 건강보험 관련 피임적용, 낙태가 대두되고 있다.

치를 철폐하는 것"이라며 피임약에 대한 보험 적용 의무화 조치 자체의 철폐를 촉구했다.

그러나 백악관은 가톨릭의 요구로 가톨릭 병원, 대학을 보험 적용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한 만큼 갈등이 정리되기를 바라는 눈치이다. 정책 일관까지 폐기하는 방향으로 추가적인

양보는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정책 수정으로 가톨릭의 반발의 강도는 어느 정도 약화되었지만 가톨릭계가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공화당이 대선을 앞두고 "종교의 자유침탈", "정부의 과도한 간섭"을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분열적 정치 이슈로 끌고 가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논란은 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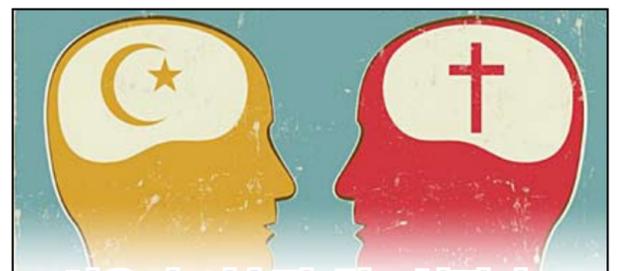
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의 종교적 자유에 대한 침해나 위축 논란은 작년보다 진행돼왔다:

2011년 2월 18일: 헬스케어 상 "양심 조항" 개정
오바마 행정부는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양심에 따라 낙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양심 조항'을 개정했다. 바로 분명하지 않고 양심에 따른 결정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개정했다.

2011년 2월 23일: '결혼수호법' 폐기 선언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정부가 더 이상 'DOMA'(Defense of Marriage Act)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이는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성적 취향은 보호돼야한다는 발상을 전면 배제(背馳)한 것이다.

(3면으로 계속)



사우디 이슬람 최고성직자 "교회 없애라!"

중동포럼, DHFC연구원의 아랍권 인터넷 홈페이지 인용 보도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이슬람지도자가 쿠웨이트에 있는 교회의 존재를 없애야 한다고 촉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중동 포럼(Middle East Forum)에 의해 인터넷에 게시된 글에서 데이빗 호로위츠평화센터(David Horowitz Freedom Center)의 연구원이자 중동 포럼의 조차원(associate fellow)인 레이몬드 이브라힘(Raymond Ibrahim)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슬람 성직자(Sheikh)이자 최고 이슬람학자인 압둘 아지즈 빈 압둘라(Abdul Aziz bin Abdullah)가 쿠웨이트에 있는 모든 교회를 멸절시킬 필요가 있다고 한 말이 몇 개의 아랍어 인터넷 홈페이지에 인용됐다고 공개했다.

이슬람학자 압둘라 빈 압둘라가 아라비아 반도의 한 부분이며 이 때문에 교회를 없애야 할 필요가 있고, 많은 선대의 이슬람 최고 학자들도 이슬람 전통에 근거하여 (아라비아)반도에 두 개의 종교가 있으면 안 된다고 선언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실을 공개한 이브라힘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최고 이슬람 학자 압둘라 빈 압둘라가 이슬람 성직자의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슬람을 세계에 전파하는 이슬람 종주국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슬람 공동체의 최고 권위를 갖고 있는 이슬람 성직자이며, 또한 이슬람 학자들의 위원회인 올레마 최고위원회(Supreme Council of Ulema)의 위원장이자 이슬람 법령 파트와(Fatwa)를 발행하고 과학 연구를 관할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라고 강조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슬람학자 압둘라의 이러한 발언이 전통적인 이슬람 경전주석 하디스(Hadith)에 근거한 것이라고 소개한 이브라힘은, 만약 무슬림이 아닌 사람이 '이교도'에 대한 폭력과 무관용을 선동하는 내용이 담긴 하디스나 다른 이슬람 문헌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무슬림들은 그러한 생각은 이슬람에 맞지 않는다고 오해하고 비방하는 사상인 '이슬람 혐오증'(Islamophobes)에서 기인한 것이며, 이러한 생각은 종교간 대화로 가는 여정에 방해물이 될 것이라는 답변을 들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중동에서는 현재 지난 2011년 발생한 반(反)정부 시위에 의한 권력 공백 상태를 이슬람 세력들이 차지하면서 여러나라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집트에서는 천년 동안 기독교를 믿어온 콥트(Coptic) 기독교인들이 무슬림들로부터 더 심한 핍박을 받고 있으며, 북아프리카의 일부 지역에서는 무슬림들이 공공연하게 기독교인을 몰아내려는 말을 하고 있다.

이라크에서는 사담 후세인 정권이 몰락한 이후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피해 국외로 도피해 이라크의 기독교 공동체가 크게 축소됐다. 시리아에서도 아사드(Bashar al-Assad) 정권이 몰락한 이후 급진주의 무슬림들이 정권을 잡으면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이 증가할 것이라 전망되고 있다.



2면

'내 제자' 아닌 '예수님 제자'로 훈련시키다!



5면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김혜천 목사(뉴욕발리밸리비자장로교회)



7면

신뢰할 때, 작은 기적들이 일어난다!



7면

부활절 아침에
광석의 권사(시인)

피종진 목사 초청 2012년도 전반기 국내·외 성회

1월

1(주)-3(화) 오신리회자살기금수기도원장장 조희연 목사 ☎(031947-0091)
1(주)-3(화) 부친 천성교회(이항일 목사) ☎(032684-3981)
1(주)오 후 안민 순도성교회(조경일 목사) ☎(032634-6291)
3(화) 오 후 안양 갈멜산금수기도원장장 조희연 목사 ☎(031472-7213)
4(수) 오 후 서울 성서교회(정재현 목사) ☎(010-5615-7073)
4(수) 저녁 울민 성서수양원(정재현 목사) ☎(031322-9196)
5(목) 오 후 세종평화교회(정재현 목사) ☎(041852-2211)
6(금) 오 후 서울 능학성교회(정재현 목사) ☎(02937-5471)
6(금) 오 후 인천 주님의교회(김동우 목사) ☎(032581-9885)
6(금) 저녁 서울 목림천교회(정재현 목사) ☎(010-8033-0366)
9(화)-11(수) 서울 강남성수기도원장장 윤순재 목사 ☎(022683-4202)
10(화) 오 후 21C홍성교회(정재현 목사) 대표회장 유근만 목사 ☎(029463-6925)
10(화) 오 후 서울 사랑의교회(정재현 목사) ☎(010-3224-2345)
12(목)-14(토) 서울 시온성교회(정재현 목사) ☎(02943-6885)
13(금) 오 후 서울 대일교회(정재현 목사) ☎(022690-5515)
14(토) 오 후 남사순교성교회(정재현 목사) ☎(029411-9191)
15(주)-18(수) 안산 안무교회(정재현 목사) ☎(031923-6947)
17(목) 오 후 한국기독교서양문화연구원(대표회장 정재현 목사) ☎(010-2292-1006)
19(목) 오 후 한영신학대학교(정재현 목사) 상선목회연구원 ☎(022067-4511)
20(금) 오 후 월드비전(정재현 목사) 상선목회연구원 ☎(010-9185-9592)
23(화)-25(수) 충주 금수성교회(정재현 목사) ☎(031745-0336)
23(화)-25(수) 상남성교회(정재현 목사) ☎(031745-0336)
23(화)-25(수) 구미 신성교회(정재현 목사) ☎(031031-6056)

3(금)-5(주) 부친 천성교회(박종주 목사) ☎(032611-8574)
6(화) 오 후 사신 안아남수양원(정재현 목사) ☎(041664-7720)

7(화)-10(금) 제168차 해외성회(168th Overseas Assembly)
미국(U.S.A) 남가주 목사연합회(대회장-김영대 목사) ☎(714932-9576)
미국(U.S.A) 텍사스주목회연합회(목사) ☎(856451-7768)
10(금)-12(주) 한영신학대학교(정재현 목사) ☎(029267-4500)
18(목) 오 후 전국교회(정재현 목사) ☎(031611-3397)
18(목) 오 후 연세대학교(정재현 목사) ☎(010-3042-3435)
18(목) 오 후 연세대학교(정재현 목사) ☎(010-5685-1691)
20(화) 오 후 한국기독교서양문화연구원(대표회장 박종철 목사) ☎(010-3443-1541)
21(화) 오 후 연세대학교(정재현 목사) ☎(031472-7213)
22(수) 오 후 안양 갈멜산금수기도원장장 조희연 목사 ☎(022067-4511)
23(토) 오 후 국제총회(정재현 목사) 이사장 박종주 목사 ☎(011-347-3390)
24(일) 오 후 김해 주안교회(정재현 목사) ☎(055336-2744)
24(일) 오 후 구미 안국교회(정재현 목사) ☎(054442-1793)

28(화)-29(목) 부산 감평산기도원장장 이옥란 목사 ☎(055375-0831)
제169차 해외성회(169th Overseas Assembly)
30(금)-4(1)주 미국(U.S.A) LA 연가오목회연합회(목사) ☎(909)698-2990

4월

1(주)-4(수) 미국(U.S.A) LA 한인성교회(안호용 목사) ☎(310)715-9802
5(목)-7(토) 미국(U.S.A) LA 발명성교회(정재현 목사) ☎(323)637-1733
10(화)-12(목) 충주 금수성교회(정재현 목사) ☎(043289-5211)
14(토) 오 후 서울 평화의동산교회(정재현 목사) ☎(041852-2211)
15(주)-18(수) 전주 원인교회(정재현 목사) ☎(016-654-6649)
18(목) 오 후 세종평화교회(정재현 목사) ☎(041852-2211)
18(목) 오 후 주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정재현 목사) 대표회장 정재현 목사 ☎(031947-0091)
19(목)-21(토) 인천 순도성교회(정재현 목사) ☎(030804-8291)
21(토) 오 후 인천 동북교회(정재현 목사) ☎(011-204-4694)
22(주) 오 후 인천 동북교회(정재현 목사) ☎(010-8034-7706)
23(화) 오 후 광주 정교교회(정재현 목사) ☎(010-5397-3478)
23(화) 오 후 인천 예도교회(정재현 목사) ☎(010-3894-3391)
24(수) 오 후 부친 천성교회(정재현 목사) ☎(011-9056-7350)
24(수) 오 후 오신리회자살기금수기도원장장 조희연 목사 ☎(031947-0091)
25(수) 오 후 주와 21C평화통일위원회(정재현 목사) 대표회장 유근만 목사 ☎(010-3224-2345)
25(수) 오 후 나라의 민족을 위한 전국기도원장장 김두봉 정로부 주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전국총회(정재현 목사) ☎(1588-4888)
25(수) 저녁 광명 일직교회(정재현 목사) ☎(02)697-1192

25(금)-27(일) 안양 갈멜산금수기도원장장 조희연 목사 ☎(031472-7213)
27(일)-28(화) 세종 평화의동산교회(정재현 목사) ☎(041852-2211)
28(화)-30(목) 남사순교성교회(정재현 목사) ☎(029463-6925)
28(화)-30(목) 재한 세례교회(정재현 목사) ☎(043644-4222)

6월

4(화) 오 후 한국기독교교회, 한국기독교서양문화연구원(정재현 목사), 학정 장수이 박사 ☎(02)432-6392
4(화)-6(목) 광주 삼복기도원장장 정재현 목사 ☎(010-3844-6189)
9(수)-9(토) 인도네시아(Indonesia) 7개 지역 복음화대회 주사(재세복음화위원회)대표회장 정재현 목사, 대표회장 정재현 목사 ☎(010-3004-0675)
10(주)-13(수) 울산 병영교회(정재현 목사) ☎(02)2067-4511
11(월) 오 후 고안 박교회(정재현 목사) ☎(010-3004-0675)
18(화)-21(목) 한영신학대학교(정재현 목사) 상선목회연구원(정재현 목사) ☎(02)2067-4511
22(금) 오 후 부산 감평산기도원장장 이옥란 목사 ☎(055375-0831)
23(토) 오 후 한영신학대학교(정재현 목사) 상선목회연구원(정재현 목사) ☎(02)2067-4511
23(토)-25(일) 평양봉수교회(정재현 목사) 대표회장 정재현 목사 ☎(061)278-1700
25(일)-27(수) 거제 양곡기도원장장 이옥란 목사 ☎(055688-4215)

피종진 목사TV, 인터넷, Radio 방송실

■ CTS 기독교TV방송
- 매주 토요일 오후 4:30
■ CBS 워싱턴TV방송
- 매주 일요일 오후 5:30
■ GoodTV방송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인터넷복음방송
- www.jesus119.net
■ CBS21라디오방송
- www.cbs21.com

■ JesusTV인터넷방송
- www.jesus-tv.net
■ 기독교인터넷방송
- www.kiddotv.net
■ 국민일보 라디오(다시방송)
- www.kuknews.com
■ 미국기독교방송(라디오)
- www.christianheritage.com
■ 라디오복음방송
- www.jstb.org
■ 라디오복음방송(라디오)
- www.kiddotv.net
■ 라디오복음방송(라디오)
- www.kiddotv.net

■ 라디오복음방송 AM 1540
- 매주 화요일 오전 6:10
■ 크리스천세상(라디오)
AM 1630
- 매주 화요일 밤 11:30
■ 미국기독교방송(라디오)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라디오복음방송(라디오)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서울총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86번지 ☎(02)411-9191, FAX: (02)401-7770
E-mail: Goodness3333@gmail.com



시론

부활은 사실이다!



민경엽 목사 (오렌지 카운티 나침반교회)

8일은 부활주일이다. 우리가 부활 주일을 지키는 데는 세 가지의 뜻이 있다. 과거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다. 미래적으로는 장차 임할 우리의 부활과 영생을 확신하는 날이다. 현재적으로는 부활정신으로 날마다 살기를 다짐하는 날이 부활 주일의 기본적인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부활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당연히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다.

인도의 성자로 불리우는 쉐나시아 영국 국회에서 연설할 때 많은 청중들이 있었다. 연설이 끝나고 어떤 사람이 그가 힌두교의 유명한 학자이고 철저한 힌두교인이었는데 어떻게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는지를 물었다. 그 때 쉐나시아는 웃음 가득한 얼굴로 기쁘게, 그리고 간단하게 대답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라고.

기독교의 신앙은 다른 모든 종교와 달리 무조건 믿는 맹신도 아니고, 미혹되어서 거짓된 대상을 믿는 미신도 아니며, 균형을 잃어버리고 믿는 광신도 아니다. 올바른 신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 바른 신앙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실로써 믿는다는 질문이 자리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2천년 동안의 기독교의 싸움은 부활을 믿는다는 문제로 집약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는 참된 신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활을 믿을 수 없다면 명목상 신자, 무니만 신자인 것이다.

의심 많은 제자 도마가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도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제자들이 모두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 순교의 제물까지 될 수 있었던 것도 부활의 사실성 때문이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사건이 성취된 것이며,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또한 거짓말쟁이가 된다고 하였으며, 부활의 역사성에 근거하여 더욱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으며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가 되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믿을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부활의 사실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야 한다.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이들은 반드시 믿고 싶는데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믿기 싫다는 선입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이들이 더 많다. 그런 이들은 어떻게 부활을 확신할 수 있을까? 먼저는 진지하게 의심하고 사실이라면 믿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확인이 될 때까지는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어떤 면에서는 확신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결국 온전한 신앙의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된다.

기독교 변증가로 세계적으로 사역하는 국제대학생선교회의 조시 맥도웰(Josh McDowell)이 바로 그런 경우이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짜라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1959년 5월 방학을 맞이해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의 도서관을 비롯한 여타의 도서관을 뒤졌다. 먼저 회의론자들의 글을 읽으면서 그들이 왜 부활을 믿지 않는지를 알게 되었다. 다음으로는 회의론자였다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들의 글을 읽었다. Frank Morrison, C. S. Lewis, Lord Littleton, Gilbert West, 그리고 Thomas Arnold와 같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고 부인하려고 성경을 연구하다가 열렬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된 자들의 글을 읽었다. 방학이 끝나가는 어느 날 런던 교외의 작은 도서관에 앉아서 자기도 모르게 도서관의 사서들이 놀라서 뒤를 돌아볼 정도로 큰 소리로 "이건 정말 진리야!"라고 외치고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머리를 믿고 감정에 치우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고 기독교를 배격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부활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역사성에 있다. 이런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그리고 역사 속의 그 누구도 부활을 부인할 수 없기에 우리는 오늘도 충만한 부활정신으로 살 수 있다. 부활을 믿기에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나아하지 않으며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히 살 수 없는 존재들이며 담대한 증인이 되는 것이다.

‘내 제자’ 아닌 ‘예수님 제자’ 로 훈련시킨다!

디사이플,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보여준 청지기 리더십 소개

선교단체나 지역교회 내에서 훈련을 받는 사람들 중에 훈련내용은 아주 좋지만 헌신을 요구하는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그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고 심지어는 신앙까지 왜곡되기도 한다. 특히 훈련 프로그램이 잘되어 있고 헌신을 요구하는 강도가 강한 교회일수록 그럴 위험성이 크다.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리더십, 특히 제자훈련을 위한 리더십의 준비가 필요한데, 청지기 리더십이 아주 좋은 대안이 된다.

성경에 나오는 청지기 리더십의 가장 좋은 예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준 것이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고후1:24). 청지기 리더십은 다른 사람의 믿음이나 삶을 주관하지 않지만 그들의 신앙 성장을 돕는 효과적인 리더십이다. 이러한 청지기 리더십은 적어도 두 가지 필수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다.

사도 바울 역시 디모데나 에바브로 디도에게 자신의 권위를 나누어줌으로써 위임의 리더십을 잘 보여주었다.

그런데 위임하는 리더십은 자칫 잘못하면 방임으로 흐르기 쉽다. 다른 사람에게 리더십을 위임하고 돌아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위임이 방임이 되고 무책임한 결과를 낳게 된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청지기 리더십이다. 청지기는 주인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관하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주인의 마음으로 주인이 맡겨준 일과 사람들을 충성되고 철저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청지기 리더십은 따르는 사람들을 관리하는데 성실하고 철저해야 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할 때 자신이 가진 권위와 능력을 나누어 주셨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들이 돌아온 후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고,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물어보았다. 이런 피드백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과 삶을 철저히 관리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이다. 디모데나 디도에게 리더십을 위임했지만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들을 관리했다. 디모데전후서나 디도서가 바로 사도 바울의 청지기 리더십의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청지기 리더는 다른 사람의 믿음과 삶을 주관하지 않는다.

성경은 리더에 대한 복종을 강조한다. 그래서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은 따르는 사람에게 절대 복종을 요구한다. 그런데 복종을 요구하다가 이것이 지나쳐서 따르는 사람의 삶과 신앙까지 주관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리더는 모든 영역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갖게 되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인격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 결과 둘 사이의 관계는 건강한 인격적인 관계가 되지 못하고, 상명하복의 기계적인 관계가 돼버린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건전한 리더십을 왜곡하게 된다.



권위는 위임하지만 관리는 성실하고 철저하게 가정 직장 교회 내 삶과 신앙에 균형이루도록

왜곡된 리더십의 첫 번째 경우는, 리더가 신앙과 삶을 주관하는 절대적인 지위에 있게 되어 모든 것을 자신과 똑같이 하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제자훈련을 할 때도 인도자가 제자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절대 복종을 요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또 사역에서 무조건 복종을 강요한 나머지 삶의 다른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사역에 헌신을 강요한 나머지 가족들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리더들은 헌신을 요구할 때 이런 면을 고려하지 못한다.

두 번째 경우는 리더가 절대적인 권위를 갖게 되면 자칫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할 위험성이 있다.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는 자기들에게 절

하려는 사람들을 분류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것을 금했다. 그러나 해롯은 하나님에게 주어지는 영광을 자기 취하려다가 죽고 말았다. 교회 안에 있는 리더들은 종종 해롯과 같은 실수를 하기 쉽다. 교회 리더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게 될 때 본의 아니게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는 것이다.

청지기 리더십은 이런 실수나 왜곡을 막을 수 있다. 청지기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주인과는 분명히 구별된다. 청지기는 주인과 비슷한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주인은 아니다. 그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며 주인을 대신해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이다. 청지기 리더십은 바로 이런 자세로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기도 하고 이끄는 것이다.

두 번째, 청지기 리더는 충성된 관리자가 돼야 한다.

독재적인 리더십에 대한 반발이나 대안으로 '위임하는 리더십'이 많이 거론된다. 그런 예는 성경에 많이 있다. 예수도 제자들이 아직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권위나 사역을 그들에게 많이 위임했다.

청지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부지런하고 성실하다. 특히 사람에게 굉장한 애착을 가지고 대한다. 성과를 지향하는 권위적인 리더들은 사람을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청지기 리더십은 일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사람을 더 중요시한다. (3편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8(광고국) E-mail : la@chpress.net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편집국장서리:유원정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 표)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 표) E-mail :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365 Days of Prayers for Early Morning Service

새벽기도를 위한 365일 기도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의 자리에서 있는 하나님의 종을 위한 대표 기도문
깨어있는 영성으로 새벽영혼을 위한 기도 양식

김향안 저 | 392쪽 | 값 12,000원

김향안 목사
철학박사, 선교학박사

목포 교육대학, 가톨릭 대학, 중앙대학원, 장로회 신학대학원, 미국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핀란드 대학, 베를린 신학대학에서 수학했다. 강남 대학, 중의 신학, 서울 신학대 등 대학원 강사, 아베아 신학대학원 교수, 한국교회정보센터 대표, 글로리아 신교의 대표, 새한국중앙교의 담임 목사를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기독교 윤리의 원천', '가톨릭사상', '비교 교회론',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영혼과 영혼의 대화', '영혼과 영혼의 양식', '여보 사랑해요', '하나님 저예요', '정기 예배의 이론과 실제', '특별 예배의 이론과 실제', '복음적인 예배와 성교를 위하여', '달음' 외 다수가 있다.

글로리아가 전하는 믿음의 책

한기총 언론상 출판부문 선정도서
김향안 목사의 시편 영성 신학

416쪽 | 값 12,000원 | 신국판 | 김향안 저

시편은 매우 영적인 책으로 찬양시, 탄식시, 감사시, 신뢰의 시, 회개와 시 등 다양한 장르의 시들을 모은 모음집이다. '달음'은 시편 1편부터 150편의 영성과 성서 인용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고백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곧 영적인 부분을 탐구한다. 시편의 관점에서는 시편의 상황 맥락, 표현되는 감정, 그 감정 치유 등을 살피고 있다. 궁정적 감정들을 승화시키는 과정에서 독자들은 기쁨을 누리는 과정을 알게 되며, 부정적 감정들로 인한 고통이 해소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경탄하게 될 것이다. 시편과 함께 성경인물을 탐구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인물의 신앙과 열매 그리고 행복담을 시편이라는 창을 통해 바라본다.

매일 바쁜 하루를 사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김향안 목사님의 기도문은 삶의 활력과 믿음을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매일 읽는 기도문 형식으로 기도의 초석을 다듬어 기도의 자리에 오롯이 서게 한다.

GLORIA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1동 685번지 (새주소/동작구 상도로 265-14)
TEL 1566-3004 FAX 02) 824-4231-2 www.gloria.net

생명과 권리 존중 공화 대권후보에 큰 관심

CT, 2011년 이후 오바마 행정부 정책 시간대별로 보도

(1면에서 계속)

바로 동성애자들도 인종이나 성별 그리고 출신국가에 따른 차별에서 보호받아야한다는 진보적인 견해를 받아들여, 전통적인 결혼 역시 성 취향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가 발표한 것이다.



2011년 4월 14일: 미국을 위한 기도의 날 소송기각
2010년 미 순회법원은 '미국을 위한 기도의 날'(the National Day of Prayer)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관계자들은 연방 법원에 항소했고, 4월 14일 연방 상소법원은 이 재판 자체를 기각시켰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부시 대통령 이후 백악관에서 진행돼오던 미국을 위한 기도의 날 행사 자체를 중단시키다가 2011년에는 기도의 날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2011년 9월 20일: 군에서의 동성애자 인정
군에서 복무하는 게이나 레즈비언들을 위한 정책(don't ask, don't tell)이 폐지됐다. 오히려 미국무부는 군목들에게 교단 법규나 본인들의 신앙이 허락하는 한 동성결혼을 집전하라는 명령까지도 하달했다.

2011년 10월 11일: 성적 취향과 고용 차별 폐지
미 국제개발국(USAID)은 동기관은 지원을 신청하는 모든 기관은 성적 취향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지원 기준을 만들었다. 그러나 월드비전과 같은 단체들의 강력한 저항에, 백악관이나 관련 부서는 강경한 입장에서 후퇴해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고 약속했다.

2011년 10월: 미주교회의회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폐기
보건국은 미주교회의회에서 지원하는 미국내 프로그램 즉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재정착시키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철회했다. 20명이 넘는 연방 상원의원들의 사유를 묻는 질의서들에 보건국은 인신매매를 당한 여성들의 임신에도 동 프로그램이 낙태를 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012년 1월 20일: 종교 기관도 피임 조항 반드시 준수해야
보건국은 또 다시 교회를 제외한 모든 종교적 기관들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보험에 피임 조항을 반드시 8월까지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종교 기관들의 거센 반발에, 오바마 행정부는 그 시한을 2013년으로 연장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건강보험개혁에 반드시 종교 자선단체에서 일하는 종업원의 처방 피임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가톨릭 측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자, 오바마 대통령은 피임 지원을 종교단체가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가톨릭과 기독교, 유대교 지도자가 공동으로 쓴 기고문을 월스트리트저널에 실었다. 바로 '종교자유를 위한 단합'이라는 제목으로 오바마 행정부가 인간의 자유인 종교의 자유를 위협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오바마 행

정부가 종교단체에서 일하는 종업원의 피임처방을 건강보험으로 커버하라는 결정을 한 것에 반박하고 있다.

지난 1월 보건국이 발표한 종교 자선단체도 예외 없이 종업원의 처방 피임을 보험으로 커버하라는 결정은 세 종교그룹을 하나로 뭉치게 했다. 가톨릭교회는 피임을 허락하지 않는데, 보건국이 피임을 허락하라고 하는 것이나 같다면 그 같은 결정은 가톨릭교회가 가톨릭 윤리를 위반하거나 아니면 헬스케어나 교육, 사회 서비스를 포기하라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대부분의 복음주의는 피임에 대해 가톨릭보다 관대하지만 복음주의 기독교도 낙태에 대해서는 수술을 하든 낙태 약을 복용하든 가톨릭과 윤리적인 기준에서 동의한다고 했다.

1790년 조지 워싱턴은 유대교인들과 주고받은 편지에서 새로 건국된 미국은 종교의 자유와 양심적인 판단의 자유 등을 보장한다는 다짐을 했다고 썼다. 이 기고문은 종교는 달라도 사회봉사는 함께하는 미국의 전통을 오바마 행정부가 장려하기는커녕 하남과 이웃을 섬기던지, 아니면 국가독재에 무릎 꿇으라고 종용한다고 비판한다.

결국 모든 종교를 믿는 미국인은 헌법 제1조가 보장한 표현의 자유로서 정부의 종교 자유 탄압에 저항해야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년 동안 50만 명 이상이 '멘헤트 선언'이라는 종교의 자유 방어 서명에 참여했다.

종교의 자유를 믿는 미국인들은 진보적인 정책으로 하나님은 주시는 인간의 생명까지도 피임과 낙태로 조절하려는 오바마 행정부보다는 인간의 생명과 권리를 존중하고 경외하는 공화당 진영의 대권 후보에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다. 따라서 2012년 대선은 바로 진보와 보수 간의 환관 승부가 될 것이다.

(2면에서 계속)

사람을 섬기는 것이 리더십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청지기 리더십

이런 청지기 리더십이 가정이나 직장 그리고 교회 내에서 꼭 필요하다. 가정에서 부모들이 청지기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 자녀를 자기의 소유로 생각하는 부모들이 종종 자녀들의 삶을 과도하게 주관하려고 한다. 반대로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채 방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경영자나 임원들이 청지기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 경영자들이 직원들의 인격을 인정해주지 않고 업무의 성과만을 강요하게 될 때, 단기적으로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경영에는 실패한다. 그렇다고 직원들을 마냥 자유롭게 내버려둔다면 제대로 성과를 얻지 못해서 역시 경영에 실패하고 만다. 기업을 경영하는 데도 역시 청지기 리더십이 필요하다.

교회에서 목양을 하고 사람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사람들 역시 청지기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사람들의 신앙과 삶을 자기의 뜻대로

주관하려 들면 일시적으로는 성장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제대로 성숙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신앙 자세를 갖게 된다.

반대로 성도들의 삶이나 사역에 대해 아무런 간섭도 없이 그냥 내버려두면, 혹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마귀의 공격에 희생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 이 두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루도록 돕는 청지기 리더십이 필요하다. 특히 제자훈련을 하는 인도자

는 정말 청지기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자신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또 제자훈련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어야지, 사람을 경직된 제자훈련 프로그램에 꿰맞추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제자훈련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돕는 것이다. 그가 경건생활을 잘하도록 점검도 하고, 때로는 생활에 필요한 조언도 해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제자훈련에는 다른 사람의 신앙과 삶을 주관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신앙 성장을 도우려는 청지기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다.

'시편' 은혜 나누기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인생의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시편 70편

시편 70편에는 "속히"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1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시어...여호와여 지체치 마소서"(5절). 이것을 볼 때 우리는 다윗이 아주 위급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인생의 위급한 상황에 빠졌을 때 속히 그 문제를 해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나의 생각이 어떠한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내 안에 나타나는 생각을 따라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생각의 모습을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생각의 가나안 땅은 하나님입니다. 그곳은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피난처입니다. 나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길에서 어려움의 문제들을 만날 때 나의 생각이 그 문제로 사로잡혀가고 있음을 발견하여야 합니다. 문제 가운데서도 나의 생각은 복이 되시는 하나님이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알고 그 은혜를 누리는 생각을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행동하시는 복이십니다.

불안정한 마음에서 '속히, 속히...' 하면서 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과는 자꾸 멀어지고, 문제에 걸려들어 내가 자꾸 약해지고 어두워집니다.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광을 입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또 그분은 나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그 이상의 복은 없습니다. 비록 나의 소원이 다 이루어 진다해도 그보다 더 큰 복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서 나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믿고 사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에 충만한 채워지는 것입니다.

시편 70편을 보면 환경은 아주 위급한 상황에 있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4절) 그 자체가 하나님이 그를 돕고 계시다는 증거요,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요, 보호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러한 환경에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나타나는 믿음이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엡2:8).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은 문제 가운데서도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누리라고 인도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온몸에 문둥병이 심한 병자가 위함을 무릅쓰고 무릎 꿇고 주님 쪽으로 들어가서 주님으로 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문제의 환경을 뚫고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모든 복이 되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께로 생각을 정조준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다른 모든 것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보일 때에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할 것이며 기뻐할 것이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믿음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추진하실 것을 믿어야 할 근거가 거기에 있는 것이 감사한 것이지요.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 아무 조짐이 보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나이다"하고 산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라볼 줄 몰라서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믿음을 훈련시키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심을 그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를 기도 했을 때 처음에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비 내리기를 기도했을 때에는 몇 차례나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는 무응답이었습니다. 다르지요? 이것은 우리의 시각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불이 내리는 그것만 바라보는 그런 차원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바로 두 번째 비를 내리는 사건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보이는 곳에 나타나야 하는 불만 보지 말고, 응답이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서도 내 안에 계속하여 믿음으로 나타나시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나의 생각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문제 가운데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나는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히 나타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부활은 화해와 용서입니다”

정오안 목사 남가주 연목회 회장

할렐루야! 부활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준 가장 크고 기쁜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죽음이 절망이라면 부활은 온 인류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님을 보여 주었습니다.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며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은 우리에게도 영생의 부활이 있음을 보여 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목숨까지 십자가 위에서 그 죄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셨으며 무덤에 묻혀 장사 지내셨으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슬픈 자에게 기쁨을 주시고, 두려워 하며 무서워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고, 의심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실패한 자에게 용기를 주시고, 절망한 자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고난을 희망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고난의 밤에도 희망의 아침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부활은 화해와 용서입니다.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2012년 부활절을 맞이하여 내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위에 있는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위로의 좋은 소식이 함께 하게 하시고, 어둠과 죄악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를 능히 이기신 부활의 기쁨이 우리 조국과 우리 한인사회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디아스포라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가주연목회

회 장 : 정오안 목사 부석부회장 : 김영일 목사
158 S. Western Ave, #102 Los Angeles CA 90004
213-422-9191 213-703-5697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 1년 구독료 | 미국 | \$100 | 유럽 | \$190 |
|----------|-----------------|-------|------------|-------|
| | 캐나다 | \$110 | 남미 | \$190 |
| | 한국및 동남아시아 | \$190 | 아프리카 | \$190 |

| | |
|--|--|
| 신청 유형 |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
|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 한 글: _____ 목 사 <input type="checkbox"/> 영 어: _____ 평 신 도 <input type="checkbox"/> |
| 배달 주소 | _____ |
| 전화/Fax | () ()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 |
| 받는분 이름 | 한글 영어 |
| 전화번호/Fax | () () |
| 배달 주소 | _____ |
| 교회/기관명 | _____ |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 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 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목회칼럼

손원배 목사 | (임마누엘장로교회)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CCC 국제본부 개혁선교팀장으로 섬기는 박태수 선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어릴 때 그의 아버지가 큰 규모의 건축 자재 회사를 경영해서 상당히 부유하게 자랐습니다. 그는 부족한 것 없이 자랐고

주변에는 항상 친구들이 들끓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던 어느 날 아버지 회사에 부도가 났고, 그의 가족은 하루아침에 알려지지 되어 2층 양옥집에서 개집보다 못한 집으로 쫓겨났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술로 날을 보냈고, 친구들은 모두 떨어져 나갔습니다. 돈을 얻으면 세상 모든 것을 얻고, 돈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 때 그는 너무 비참하여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그는 그날 저녁 자살을 결행하기로 하고 쥐약을 챙겨 가방에 넣고 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교실 책상 뒤에 앉아 있던 친구가 뜬금없이, "태수야, 우리 탁구 치러 갈래?" 하였고, 별 생각 없이 따라간 곳이 바로 난생 처음 밟을 디던 교회였습니다.

거기서 그는 지금까지 어울려 놀던 친구들과는 너무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평소 그는 교회는 의지가 약하거나 고리타분한

사람들이나 다니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교회에서 그는 티 없고 순수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전도사님은 그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요청했고, 그날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날 밤 교회를 나오며 그는 가방에 있던 쥐약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만약 그날 교회에서 그를 동정하여 돈을 몇 푼주거나, 망해버린 그의 집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주려고 했다면, 그는 그날 죽어버렸을 것이라고. 그런데 교회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살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는 살아야 하는 이유를 찾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그는 선교사가 되어 죽음을 무릅쓰고 험벗고 굶주리는

미전도 종족들을 찾아다니며 섬기고 있습니다. 전쟁, 장티푸스 등 전염병,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에이즈로 죽어가는 아이들, 기근, 신발도 없이 거친 돌밭을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있는 곳, 어디에 가든지 먹을 것을 달라, 약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사람들을 만난다고 합니다.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식량과 의약품을 전해 줍니다. 그렇지만 그는 항상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병에 걸린 사람에게 약을 준다 하고, 그 사람의 문제는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비로소 새 생명을 얻고 어떤 비참한 환경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게 되며

살아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박 선교사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올해도 어김없이 부활주일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생명이 어디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 주일에 함께 만나 힘 있게 외칩시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이 땅에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무너져가는 이 세상 속에 유일한 소망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푸/ 른/ 초/ 장

조응철 목사 | (라스베가스 갈보리 장로교회)



잃었고, 눈을 잃었고, 생명을 잃었습니다. 신자가 타락해서 세상으로 내려가면 불신자보다 더 악해 집니다.

2. "올라갔습니다"

나오미는 그 자부 롯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실패를 씻고 곧 가나안으로 올라갔습니다. 슬픈 역사는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이방에서 눈을 잃었고, 이방인의 조롱 속에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과부 나오미는 돌아왔습니다. 즉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회복의 비결입니다.

눅15장의 돌아온 아들처럼 실패한 그대로, 상처 있는 그대로, 배고픈 그대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레아 위로와 치료와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자기 힘으로 회복해 가지고 올리는 사람은 더 깊은 상처와 괴롭고 타락만 더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지 않고 회복시키지 않았는데 삼손처럼 힘을 내고 소리를 내도 아무 힘도 나타나지 않는 법입니다. 사람들의 보는 눈이 부끄럽다고 자기 힘으로 회복하고 돌아오려는 자는 하나님께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자기를 치료하지도 못할 사람입니다. 나오미처럼 부끄러움 무릅쓰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합니다.

롯은 생명을 걸고 조국과 종교와 평생을 희생하고 시어머니나 오미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에 와서 식량과 가정과 그리스도의 조상이라는 영광과 사랑을 얻었습니다. 타락자, 이방인, 실패자들이 하나님께 와서 영생과 의의 후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롯은 그리스도께로 와서 그를 만남으로 그리스도의 조상이라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은 고난과 가시 밭 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나 천국 갈 때까지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는 것입니다.

성경 보는 것 등한히 하는 자는 세상으로 내려가는 자입니다. 기도생활 게을리 하고, 성수주일 못하는 자도 세상으로 내려가는 자입니다. 예배시간을 등한히 해서 자주 빠지는 자도 세상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 물질 때문에 신앙생활에 열심히 없는 자는 세상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과 벗되고 육신의 즐거움을 일삼는 자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십시오. 큰 축복을 받으십시오.

(골3:1-4)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엿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엿 것을 생각하고 땅에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였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중에 나타나리라."

내려가지 말고, 올라가라 룻 1:1-5, 19-22

1. "내려갔습니다"(Went down or Went out)

1:21에는 "Went out 나갔다"로 돼있습니다. 사14:1에는 "Went down"을 "내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좋지 않은 말입니다.

1) "내려간/가간" 이유입니다. 그들은 풍부했었습니다(21). 그러나 베들레헴 성에 흉년들어 모압에 식량이 많아 육신 살기에 좋다고 하니가 나갔습니다. 성경에 엘리멜렉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이 세상일 때문에 하나님의 땅을 떠나 나간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에 흉년들어 "애굽에 양식이 있다"

는 말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나실인인 그 삼손이 가나안을 떠나서 담나로 갔습니다. 이유는 블레셋 여인을 보러 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민입니다. 구별된 나실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지 못할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천 된 사람으로서 때때로 죄악의 땅 블레셋으로, 모압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거기에는 빵이 있고 춤과 향락, 육신의 쾌락이 있어서입니다. 신자의 생활은 양식과 의복과 향락문제로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을 위해서 때때로 목숨을 버려야합니다.

2) "내려간" 결과입니다. 모압에 가서 엘리멜렉 가정의 모습은 재산은 없어졌고 삼부자는 죽었습니다. 남은 것은 가난과 세 과부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교훈은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죄악의 땅에서 육신과

물질적으로 성공했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오해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서 큰 망신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애굽에서 빼앗길 뻔했었고, 본의 아닌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의 친구요 신앙의 조상의 위신에 손상을 입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으로 내려가서 지혜(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잃었고, 힘을

1) 올라갈(돌아갈) 태도입니다.

나오미는 자기의 비참한 모습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가난해져서, 가진 것 없이 보따리하나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돌아오는 모습은 참으로 초라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태도는 나오미 같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의 품밖에 없습니다.

2) 올라간 결과입니다.

나오미는 올라가서 여러 가지 축복을 받았습니다. 효성이 지극한 며느리 롯의 사랑과 봉사로 위로를 얻었습니다. 다윗의 조상을 품에 안고 만족했습니다. 즉 메시야, 그리스도의 조상을 안았습니니다.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여름학기 안내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본교 소개 및 특전

- 1. 74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 2. 미국에서 유일한 선교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 4. 선교학 석사학위 전과목 온라인 강의
- 5.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I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과정

- 석사과정(M.A.)
- 석박사 통합과정
- 박사과정(D.Min., D.Miss.)

선교학 석사학위를 인터넷으로

- 직장과 사역을 떠나지 않고 전과목 온라인 강좌
- 영어/한국어 강의
- 이수확정: 36학점 (12과목)
- 대상: 목회자, 선교역사, 사모, 장로, 권사, 집사
- 특전: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선교학 박사과정 지원서 특혜

LA현지강의 안내

- 일시 : April 10-April 14(4월 10일-4월 14일)
- 과목: DI 804 Philosophy of Ministry(목회철학)
- 교수: Dr. Rock LaGioia, Professor
- 장소: 3102 Wilshire Bl., LA, CA. 90010
- 전화: 213-999-0671, 714-308-7308

여름학기 본교 강의안내

May 21-May 25 (5월 21 - 5월25일)

DI 802 Cultural Anthropology (문화인류학)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ter, Professor

PM 826 Current Theology Issues (현대신학동향)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Mark Soto, Professor

May 28-May 31 (5월 28 - 5월 31일)

DI 828 Methods of Social Research (사회조사방법론)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ter, Professor

PM 853 Strengthening Spiritual Vitality (영성강화)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John Teevan, Professor

Grace Theological Seminary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Ronald Manahan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사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크리스천의 눈으로

지난 2일 우리 가슴을 덜컹 내려앉게 만든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다. 미국 오를랜드에 한국인이 설립한 오이코스 대학에서 총기 난사사건이 일어났다. 그 결과 7명의 학생이 살해당했다. 얼마 전 아틀란타 사우나 살인사건은 한인인 한인을 향하여 총을 난사해서 5명이 죽었다. 또 2007년 버지니아텍에서 발생한 조승희의 총기난사는 미 역사상 최악의 캠퍼스 폭력사건이었다.

40대의 용의자인 고 씨는 이 대학에서 간호학을 공부했다가 몇개월 전 퇴학을 당했다고 한다. 그는 최근에 들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것

을 금지되어져 있어 혼동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것이 분명해진다. 모든 분노가 다 나쁜 것은 아니다. 또한 모든 분노가 다 좋은 것으로 인정받는 것도 아니다.

분노에는 두 종류가 있다. 의로운 분노와 의롭지 못한 분노다. 첫째로, 의로운 분노는 하나님의 분노이다. 하나님의 분노는 언제나 공의롭고 정당하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죄를 묵과하실 수 없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지만 감정적이지 않으시다. 부정적이거나 파괴적이지도 않다. 내편이니까 무조건 봐

원인에 의하여 일어난다. 우리는 어떤 개인이나 어떤 사건이나 혹은 현재나 장래의 일에 대한 염려들을 통해서 분노하게 된다. 과거의 어떤 아픈 상처들이나 고통스러운 경험에 대한 기억들이 분노를 일으키기도 한다. 그래서 분노는 두 번째 감정이라고 불리운다. 분노는 우리가 일차적으로 맨 처음 느끼는 감정이 아니다. 다른 감정이 먼저 느껴지고 그 다음 느끼는 감정이 우리에게 불편해지면 마침내 화를 내게 된다.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되는 감정들을 보고 분노를 앞서는 감정들이라고 부른다. 분노를 일으키는 것들은 보통 두려움이나, 실망, 창피를 당하였을 때, 죄책감을 가질 때, 질투심, 자기가 부적당함을 느낄 때, 아픔이 있을 때, 때로는 피곤하거나 배고픔이 유발하기도 한다. 이러한 것들은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따라서 내가 화를 내는 이유는 내가 약하다는 것을 느끼고 인정하는 것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분노를 냄으로서 내가 강하다고 하는 것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이 있고 강하면 여유가 생

이다. 사실 분노는 자연적인 사람의 감정이다. '분을 내어도' 라는 말은 분노가 허락되었음을 말한다. 분노는 하나의 신호와도 같은데 무엇이 잘못되어지는 것 같은 것에 대한 반응이다. 또한, 분노 그 자체가 반드시 최악은 아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노하셨다. 그러나 죄를 짓지는 않으셨다. 예수님은 의로운 분노를 하셨다. 우리가 분노를 하지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인간은 분노를 잘 통제하지 못한다.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고 품으면 죄이다.

따라서 분노에는 한계와 제한이 있어야 한다. 성경은 두 가지 한계를 말씀하신다. 먼저, 분노에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다. 시간적으로는 분노를 해가 지도록 까지 지속시켜서는 안된다 하셨다. 즉, 지속적으로 분노를 품지 말라는 말씀이다. 두 번째 한계가 있는데 그것은 정도의 한계이다. 분노를 품되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할 정도만 품으라는 것이다. 분노는 용서로 사랑으로 이해로 바꾸어져야 한다. 분노를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가 약해진다. 마귀가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나성서부교회 / (310)749-0577
E-Mail: LSPC0316@yahoo.co.kr

Q: 나성근교의 벨리에서 교회를 섬기는 장로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요즘 목사님께서 로마서를 강해하시므로 저는 로마서를 읽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베벌리 힐스에서 이용분 권사

A: 일반 성도들이 이 성경구절을 읽을 때 해석하기 쉽지 않은 구절입니다.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해하기 어려운 곳이 나오면 목사님께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질문은 학자들마다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롬12:20)는 이 구절을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악인에게 "뜨거운 숯불이 떨어지게 하실 것(시 140:10)이라 말하므로 어떤 사람은 여기 나오는 숯불을 심판의 상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잘 먹이고 섬기는 것은 그들이 받을 증거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해석은 잘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것이나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구절을 볼 때 앞 뒤 문맥과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다는 말은 다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해석으로는 그 구절을 그 당시의 관용구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숯불을 머리에 올려놓으면 얼굴이 화끈화끈 거립니

원수가 수치를 느끼고 회개하도록 하기위해

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원수로 부끄럽게 만든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에게 친절을 베풀므로 원수에게 수치와 후회를 유발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또한 원수로 하여금 수치와 후회의 결과로 회개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 애굽의 의식 중에 회개자가 회개의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 자기의 머리에 타는 숯불을 지고 가는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의 교인들이 이런 애굽인들의 의식을 알았는지 모르나 숯불을 올려놓는 것은 결국 원수로 회개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은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원수가 주렸을 때에 먹이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함으로서 원수로 하여금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부끄럽게 만들어 친구로 만들 수 있다는 해석이 더 타당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숯불은 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치료하기 위하여, 소외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얻기 위해서, 원수를 갚기 위해서가 아니라 원수로 하여금 수치스러워 회개하게 하기위한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바로 그와 같이 했습니다. 자기를 판 형들을 애굽에서 만났을 때 그는 형들을 안심시키며 그들을 후하게 대접했습니다. 먹고 있는 형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치리자로 삼으셨나이다"(창45:8).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철두철미한 신앙으로 악을 선으로 갚은 것입니다. 신자들은 불로 불을 이기는 자들이 아니라 물로 불을 이기는 자들이고 빛으로 어두움을 이기는 자입니다. 어둠은 무시무시하고 굉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줄기의 빛이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사랑으로 마음을 이기십시오.

분노의 계절에서 승리하려면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김혜천 목사



으로 알려졌다. 작년에 어머니를 잃고 동생도 교통사고로 잃고 아버지와는 따로 떨어져서 살고 있었다고 한다. 아내와도 이혼을 했다고 한다. 정말로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 앞으로의 사명을 주시해보아야 하겠지만 이번에도 미국 언론이나 미국인들의 반응은 매우 성숙하다. 한인에 대한 인종적 공격이나 질타는 없다. 단지 총기 허가에 대한 이슈를 더욱 정치적으로 쟁점화해가는 분위기가 있다.

어떻게 신학대학이 있는 학교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학교 이름인 오이코스의 의미는 집, 가정, 가족이라는 뜻이다. 어떻게 가정 안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번 사건도 물론 미리 짐작할 필요는 없지만 오를랜드 경찰은 고 씨가 간호대에 다니다가 퇴학당한 것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미움과 격분에 의하여 일어난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

분노가 무엇인가? 분노는 사실상 우리에게 필요한 감정이다. 신체적인 위협이나 고통에 대하여 반응하는 적절한 것이다. 하지만 정신적이나, 자아, 자존심이 상하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분노는 부적절한 것이다. 분노는 상처를 입었을 때 나타난다. 성경이 어떤 경우는 분노를 정당화하는 것 같고, 어떤 곳에서는 분

주는 눈 감고 지나가는 것도 아닌, 사람을 근거로 하시는 의로운 분노이다.

사람의 분노 가운데서도 정당한 분노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반드시 주의를 요한다. 세상 사람들도 정당한 분노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거짓이 득세하는 것을 보면 분노를 표출한다. 부정과 부패에 대한 의분이 있다. 그러나 소위 세상 사람들의 정의는 눈에 보일 때는 정당한 것 같아도 그 안에는 음모와 자기주장과 자기 이권과 자기 권세를 위한 잘못된 동기가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분노는 정당하게 보이나 사실은 잘못된 분노들이다.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 될 수 있는 분노는 오직 하나님을 위한 분노이다. 죄에 대한 분노이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은 정당한 분노이다(출 32:19-20). 사탄의 역사를 볼 때, 불의가 성행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들이 행하여질 때 분노하는 것은 정당하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분노들 역시 엡 4:26-27의 원리에 지배를 받는다.

둘째로, 대부분 사람들의 분노는 정당하지 않은 분노이다. 매우 파괴적이며 잘못된 원인으로 분노하는 것이다. 물론, 분노의 원인은 여러 가지이다. 외부적인 혹은 내부적인

긴다. 화를 계속 내는 것은 약함이나 아픔이 있다는 말이 된다.

분노의 단계는 개인의 살인을 통해서 작나라하게 보여준다. 분노는 통제되지 않으면 점점 악화된다. 분노를 억제하지 않고 그 감정에 부채질을 한다면 점점 더 정도를 더해간다. 더 정도가 지나치면 분개에서 격노로 바뀐다. 점점 더 노가 격하게 되어 격분한다. 격분은 폭력이나 오고 감정적인 통제력이 상실된다. 상대에게 상처를 입히려하게 되고 포악한 폭력이 나온다. 더 나아가면 광분의 단계로 나간다. 광분하게 되면 파괴적인 행동들이 지나쳐서 제정신이 아니게 된다. 가인과 같은 자기의 동생을 죽이는 살인행위로 나간다.

왜 분노가 발전되는가? 분노는 에너지와 같은 것이다. 분노는 자동적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분노는 축적이 되고 나중에는 형태나 모양을 바꾸어서 다른 방법으로 나타나게 된다. 건강을 해치고 정신적 건강도 상하게 된다. 분노는 영적인 문제이고 심지어는 살인도 하게 된다.

그렇다면 분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엡4:26-27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하셨다. 첫째로, 분노는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

우리를 통하여 역사할 틈을 주게 된다. 분노에 이끌리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옮기고 결국은 망하게 된다.

성경은 잘못된 분노를 극복하려면 첫째로 분노의 원인을 고치라 하셨다. 우리는 분노 그 자체에 집중하여서 사실을 화를 내게 하는 그 원래의 원인을 무시하는 수가 있다. 둘째로, 잘못된 분노를 극복하려면 분노의 대상을 바로 파악해야 한다. 우리의 분노의 대상은 사탄의 역사에 대한 것이다. 죄에 대한 것이다. 분노의 대상이 아닌 것은 내가 상대하는 사람 그 자체는 아니다. 우리는 죄와 죄를 짓게 하는 사탄의 역사를 미워해도, 죄를 짓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도록 주의함이 필요하다. 셋째로, 분노의 계절을 극복하려면 분노의 순간에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님께 순종해야 한다.

분노의 계절은 분노 속에서 사는 것이다. 분노의 계절은 하나님과의 건강하고 친밀한 관계의 부재에서 온다. 분노에 젖어서 밤낮을 사는 것은 죄이다. 우리의 영적인 삶을 무력하게 하고 비극을 가져오는 구멍이다. 온 세상에 소용돌이치는 이 분노의 계절에서 나의 영적인 상태는 과연 어떠한가?

혼돈과 공허의 블랙홀 속에 빠져 표류하는 이 시대
여기 영적 전쟁의 근원을 파헤치고
하나님 도성의 거룩한 군사로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제시하는
한 편의 스펙터클한 영화와 같은 책이 있다

인류의 첫 번째 후배 허성에서 거룩한 전쟁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파멸을 감행하신 분은
소강석 목사가 처음으로 쓴다!
-서예원 권 총신대 신대원장

특별치인 사자의 신화사 못지않은 영의성과
영성변 환한데 의하여 감탄을 금치 못한다!
-김현철 전 황사대 총장

경고한 신학적 열개를 바탕으로 구약과 신약을 넘나드는 통전적 주해와
고대 근동 문명을 캔버스로 하여 펼쳐지는 입체적 내러티브는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 마다 거룩한 흥분과 감동을 준다.

오늘날의 모든 설교자와 성도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
2012년 한 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지침서!

거룩한 전쟁

소강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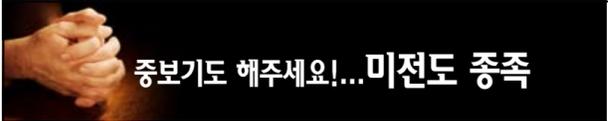
연말의 소망자
소강석 목사

1966년생인 목회사역 10여년에 한국
연말의 소망자, 목회자로 활동 중이며, 새생명교
회 담임목사로 사역하고 있다. 수필은 시
어, 에, 부흥의 인도를 통해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주시며 주의를 요
다. 2008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신명
홍익문화상 최우수상, 2011년 목회
문화상 최우수상, 2011년 목회
문화상 최우수상 수상한 바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신명홍익문화상 최우수상, 2011년 목회
문화상 최우수상 수상했다. 일시적으로
목회상과 이렇듯 순행해서 나오는 그의 작품 활동은 많은 목사들에게 장
찬의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영적 전쟁을 위한 소강석목사의 또다른 저서



영적 전쟁을 위한 소강석목사의 또다른 저서
영적 전쟁을 위한 소강석목사의 또다른 저서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부탄의 상글라(SANGLA)



부탄은 인도의 히말라야, 티벳, 중국과의 사이에 위치해 있는 세계 유일의 불교 왕국이다. 상글라는 “천둥 용의 땅”으로도 잘 알려진 작은 땅 부탄의 남동쪽, 우기가 적은 삼림지역인 타시강의 남쪽에서 살고 있다.
상글라는 동쪽에서부터 부탄을

관통하는 티벳-버만 문화의 한 축이며 스스로 북편 부탄인들과 같은 몽골 종족으로 언급한다. 더구나 그들은 티벳, 버마, 연남, 중국인들과 연관되어 구별된 문화적 특색이 분명하다. 그들의 언어는 상글라이어로 불리우는 시노-티벳 언어 계통의 말을 사용한다. 부탄은 외국과의 거래나 여러 부분에서 인도와 많이 의지하고 있다. 또 부탄과 인도 사이에 새로 닦여진 길도 생기고, 많은 상글라인들이 힌두어와 아쌈어를 배우고 있어 인도인과의 밀접한 접촉을 하게 될 것이다.

삶의 모습
상글라인들은 농경사회를 이루고 있고 화전(火田)법을 사용하고 있다. 울창한 삼림의 성장은 땅을 경작지로 사용하는데 제약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초목을 태우면서 땅을 개간한다. 그리고 그 위에 삼사면 동안 쌀을 재배하고 그 땅이 불로지가 되면 버린다. 그러나 일부 상글라인들은 그 숲에서 넓은 부분을 개간하고 영구적으로 정착하기도 한다.

상글라의 집은 바위와 나무로 지어지며 보통 산비탈을 따라 흠어져 사는 정착민들이 각주 위에 집을 세운다. 대규모의 정착민은 “드중(dzongs)”이라고 불리우는 수도원 단체를 가지는데 기도 깃발들과 기도 바퀴들로 표시한다.

“미툰(mithun)”으로 알려진 소는 부의 상징이고 종교의식에 바쳐진다. 돼지와 염소는 또한 팔거

나 제사 때 제물로 사용하기 위해 길러진다.

수질오염은 부탄에서 가장 심각한 환경 문제 중의 하나로 시골주민의 70%는 깨끗한 물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정착지에 양수(良水)가 부족하면 근처의 샘이나 개울에서 대나무 수도관을 통해 물을 끌어다 사용하기도 한다. 거의 80%의 부탄인들은 전기 없이 생활하고 있고 또한 대부분의 전기 공급은 인도의 인력을 넘어 수출된다. 그러나 험준한 산악 지대이기 때문에 먼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전기 공급을 아직도 많이 기다려야 한다. 시골 지역민들은 세금을 지불하지 않는 대신 그 지역에 학교를 세우거나 길을 닦는 정부의 프로젝트에 댓가 없이 일할 의무를 부여받는다.

신앙

티벳 불교는 부탄인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불교 사제들은 종종 그 공동체에 의해 지원받기도 한다. 그러나 상글라는 민간 신앙을 유지하면서 그들의 윤리 종교의 관습을 따르고 있다.

티벳에서는 종교적인 비문들이 각각의 집 근처에 세워져 있는 것 발들 위에 적혀있으며 종교적인 문구가 포함된 바퀴들은 상글라인들이 걷거나 쉴 때에도 계속해서 함께 이동하게 된다. 병은 언제나 악마나 영적인 것에 의해 생긴다고 믿고 있고 라마스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는 불교 성전을 읽어줌으로써 악귀들을 내쫓는다.

게다가 사마니즘적 요소들이 신비스러운 종교행사나 미신 풍습에 남아 있어서 예언이나 악귀 등은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믿고 있다. 모든 마을에는 노염을 가리왔다는 “땅의 신” 또는 “십다

그(shibdag)”를 가지고 있고 각 집마다 “타브-이하(tab-lha)”라고 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우상을 가지고 있다.

필요로 하는 것들

부탄은 1974년까지 관광객들에게 개방하지 않았고 여전히 매해마다의 관광객 수를 제한하고 있다. 비록 그들은 최근에 펠시콜라가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했지만 여전히 “연약한 문화”라고 불리는 군주국을 보호하기 위해 위생방송 텔레비전은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억압적인 정부는 서방측에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으며 특히 다른 종교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그러나 상글라에는 라디오 방송이 있다. 부탄의 한 청취자는 “나는 상글라 프로그램을 듣고 있는데 무척 좋아한다”고 말한 내용이 전해지기도 했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오바마, 경합주 12곳서 9%P차로 롬니 앞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과 민주당을 번갈아 선택해온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Swing State) 12곳의 지지율 조사에서 공화당 경선 선두 주자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를 9%포인트 차이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가 USA투데이와 겹겹 여론조사 결과 보도했다.



두 기관이 스윙 스테이트 12곳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벌인 이번 여론조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51%의 지지율을 얻어 롬니 전 주지사(42%)를 크게 앞질렀다.

USA투데이가 조사에 따르면 한 달 전만 해도 오바마 대통령은 롬니 전 주지사에게 2%포인트 차로 뒤졌었다. 조사기관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지지율 반전은 50세 이하 여성 유권자들의 지지가 대대적으로 그에게 옮겨가 데 힘입은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2월 중순에는 50세 이하 여성 유권자의 절반 이하만이 오바마를 지지했지만 현재는 10명 중 6명이 오바마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들의 롬니 지지율은 14%포인트 떨어져 30%에 머물렀다. USA투데이는 50세 이하 여성 유권자층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롬니 전 주지사를 2대1로 앞선다고 설명했다.

롬니 전 주지사는 50세 이상 남성 유권자층에서 56%의 지지율을 얻어 오바마(38%)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롬니는 모든 남성 유권자 연령층에서 한 자릿수 포인트 차로 오바마를 앞섰다. 그러나 여성 유권자층에서는 오바마가 롬니를 18%포인트 차로 크게 앞섰다.

공화당 선거전략가인 사라 테일러 페이지는 공화당의 전통적 남성 지지기반층만으로는 “여성 표를 9-10%포인트 잃을 경우 승리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낙태에 관해 이슈가 집중되는 것은 공화당에 유리

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 조사는 지난달 20-26일 콜로라도, 플로리다, 아이오와, 미시간, 네바다, 뉴햄프셔, 뉴멕시코,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버지니아, 위스콘신 등 12개 스윙 스테이트에서 실시됐다. 오차 범위는 ±4%포인트다.

트위터로 모하메드 모독 쿠웨이트 남성 체포

(쿠웨이트 로이터=연합뉴스) 쿠웨이트 당국이 트위터에서 이슬람교의 예언자 모하메드를 모독한 남성을 지난 27일 체포했다고 내무부가 밝혔다.



내무부는 관영 뉴스통신 쿠나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이 남성은 트위터를 통해 이슬람 신앙을 비방하고 예언자 모하메드와 동지 등을 모독했다면서 이 남성이 현재 사법절차에 앞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내무부는 이어 “일부 개인들이 이슬람의 기본적인 영적인 가치들을 해치기 위해 소셜네트워크를 악용하는 것은 유감이며 이런 심각한 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쿠웨이트에서 신성모독은 지난 1961년 제정된 언론 및 출판법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쿠웨이트 법원은 작년 9월에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걸프지역 통치자들을 비방하는 등의 혐의로 한 남성을 체포했다가 구속기간이 이미 형량을 넘겼다는 이유로 석방했다고 한 인권운동가는 밝혔다.

프랑스, 이슬람 성직자 4명 입국 불허

(파리=연합뉴스)프랑스는 내달 파리 인근에서 열릴 이슬람기구연맹(UOIF) 회의에 참석하려는 이슬람 성직자 4명의 입국을 금지시켰다.
알랭 쥐페 외무장관과 클로드 게양 내무장관은 29

일 공동성명을 통해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아르카마 사브리 등 이슬람 성직자 4명의 프랑스 입국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르 파리 지역 신문 인터넷판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성명은 “이들의 증오와 폭력 주장이 프랑스공화국의 원칙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있으며 공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높다”고 입국 불허 사유를 설명했다.



기독교 여론조사 지지도 5순위

한국내 기독교유니온당(기독당)은 “모노리서치에 의뢰한 전화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중 6.7%가 ‘기독교 정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만든 정당’으로 적극지지 한다”고 답했다”고 28일 밝혔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기독교당의 정치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66.2%가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잘 모르겠다’(16.8%) ‘별로 기대하지 않지만 지지 한다’(10.3%)가 뒤를 이었다.

‘어느 정당이 투표 하겠냐’는 질문에선 1.4%가 ‘기독교당에 투표 하겠다’고 답해 새누리당(45%)과 민주통합당(29.2%), 통합진보당(7.2%) 자유선진당(3.5%)에 이어 5번째 지지도를 보였다.

여론조사는 27일 실시됐으며, 전국 19세 이상 남녀 1706명이 참여했다. 신뢰수준은 95%로 표본오차는 ±2.37%.

아제르바이잔, 종교법에 의한 교회 폐쇄 시작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에 있는 Greater Grace Church가 새로운 종교법에 따른 재등록에 실패해 폐쇄 위기에 몰렸다. 종교조직사무에 관한 국가위원회는 이에 따른 법률적 폐쇄절차를 밟고 있다. 타히라 아사도바 판사는 지난 3월 15일 이 교회의 문제에 대해 법률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혀 폐쇄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아제르바이잔에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가혹한 수

준의 종교법을 도입했다는 보도는 나온 적이 이미 있으며 이번 조치는 이 종교법에 의거해서 실제로 교회들을 폐쇄하려는 당국의 준비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 교회는 지난 1993년에 정부에 등록해 법적인 합법성을 획득했으나 결국 이번에 등록을 거부당하면서 18년 만에 불법교회로 전락했다. 그러나 교회 측은 정부의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은 카자흐스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종교법에 따라 성인신자 50명을 확보하지 못한 교회는 모두 재등록을 거부당하면서 최소한 579곳의 교회와 이와는 별개로 수많은 소수예배공동체들이 폐쇄 당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교회 재등록서류를 제출한 교회의 13%가 등록을 거부당하고 있다. 또 등록을 거부당한 교회의 목사들이 당국으로 소환되어 더 이상 모임을 갖지 말라고 협박을 받는 것은 두 나라 모두 마찬가지이다.

오바마, 공화당보다 많은 선거자금 보유

공화당이 후보 경선으로 선거자금을 소비하는 동안 오바마 대통령은 현찰을 쌓아놓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월의 선거자금보고에 따르면 오바마 선거팀은 2월말에 8,500만 달러의 예금을 보고했고, 이는 1월의 7,600만달러에서 900만 달러가 증가한 것이다. 이는 전체 공화당 후보군이 은행에 가지고 있는 돈보다 6배나 많은 것이다.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 롬니는 2월말 현재 730만 달러로 공화당의 다른 경쟁자를 압도하고 있다. 전 펜실베이니아 상원의원 샌토롬과 전 하원의장 김그리치, 텍사스 연방 하원의원 폴 모두를 합치면 2월말 기준 550만달러가 은행에 있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했다.

2월의 선거자금 보고는 롬니가 다른 후보보다 더 많은 자금을 모았지만, 샌토롬이 빠르게 그 간격을 좁히고 있음을 보여준다. 2월에 롬니는 1,150달러를 모금했고, 샌토롬은 900만달러를 모금했다.
(7면으로 계속)

BOOKSKOREA PRINTING & PROMOTION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인쇄물과 판촉물을 한 자리에서 제작 할 수 있는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사업부에서는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완성하여 드립니다. (창립기념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명함, 전단지, 브로슈어, 엽서, 스티커, 달력, 선물권, 헌금봉투, 전도지, 주보, 배너, 옥외 / 실내 스탠드배너, 전도용 작품제작 프린팅 단체 티셔츠, 타월, 토트백, 머그잔, 볼펜, 전도에 필요한 아이টে모든것-

판촉물을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방문하십시오.

상담 환영!!!

전화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미주내 각 교단 2012총회 일제히 개최

3월 순복음세계선교회 시작으로 6월말 PCUSA까지

미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반기 각 교단 한인 총회가 일제히 시작된다.

지난 3월 27일에 개최한 순복음 세계선교회북미총회에 이어 4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미주내 각 교단총회는 이번에는 특히 한국, 중국, 태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개최된다. 미주에 있는 한인교단들은 한국에 뿌리를 둔 교단들과 미주내 자생적인 교단, 또 미국교단의 한인총회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총회장 및 신임 임원들을 선출하게 된다. 다음 도표는 상반기에 개최되는 각 교단 총회

| 교 단 | 일 정 | 장 소 |
|---------------------|-----------------|---|
| 순복음세계선교회북미총회 | 3월27일(화) | (NY)뉴욕순복음연합교회(담임 양승호 목사) |
| 미주기독교복합연회 | 4월10일(화)-12일(목) | (CO)네비게이터 선교회 수양관 'Glen Eyrie' |
|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KUMC) | 4월16일(월)-19일(목) | (NJ)Hilton Woodcliff Lake Hotel 뉴저지 아플라교회(담임 안영훈 목사) |
| 미주성결교회 | 4월16일(월)-20일(금) | (NY)뉴욕성결교회(담임 장석진 목사) |
| C&MA한인총회 | 4월17일(화)-21일(목) | (한국)제주도 |
| 나사렛성결교회 | 4월23일(월)-26일(목) | (CA)천안교회(담임 김성대 목사) |
| 미국장로회한인교회협의회(PCAA) | 4월23일(월)-26일(목) | (VA)와싱턴중앙장로교회(담임 노창수 목사) |
| 북미개혁교회한인교회협의회(CRCC) | 5월1일(화)-5일(토) | (중국)북경 풍대 인터내셔널 호텔 |
| 대한예수교장로회(KPCA) | 5월22일(화)-24일(목) | (WA)타코마새생교회(담임 임규영 목사) |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 5월22일(화)-25일(금) | (NJ)세라호텔 |
| 대한예수교장로회 해외동맹총회 | 5월23일(수)-24일(목) | (태국)방콕 은혜교회(담임 정석진 목사) |
| 남침례교회한인총회(SBC) | 6월18일(월)-21일(목) | (MD)BWI 광왕 스웨덴 호텔 |
| PCUSA한인교회(NCKPC) | 6월19일(화)-22일(금) | (CO)The Crowne Plaza Denver |

일정이다.

(박준호 기자)

한인 신학대 총기난사 7명 사망

미 전국은 물론 한인사회 큰 충격

지난 2일 오전 오�클랜드에 위치한 오이코스대학 간호학과 강의실에서 총기사건이 발생, 7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당했다. 본 총기사건은 간호학수업과 영어 수업이 진행되고 있던 중 발생한 것으로 간호학을 수강하던 한인 심씨(22세)와 김씨(23세)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알은 이를 위해서 60%의 국토를 숲과 푸른 산으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교육과 의료 부분에 최대로 예산을 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개발보다는 산림자원의 보호를 우선한 결과 산림과 천연자원이 가득한 나라로 보존되도록 했습니다. 관광자원을 통해서 엄청난 물질적 부유를 가져올 수 있지만 외국 사람들의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왕이 친히 숲에 있는 통나무집에 살면서 빈부의 개념이 없어지게 만들었으며 자연과 벗 삼아 사는 백성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로 국민의 평균수명이 20년 이상 늘어났고 국민의 행복도 또한 세계 상위권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부탄이 "지구상의

고 들어가 한 여성을 겨냥해서 쏜 뒤 다른 학생들에게도 무차별 난사를 시작했으며 도주하면서 총격을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자는 사건발생 1시간여 만에 근처 쇼핑몰에서 체포됐다.

이날 총격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한 학생에 의하면 "용의자가 교실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권총을 꺼내 들고 벽 쪽으로 사려고 했으며 이에 학생들이 놀라 도망가자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고 상황을 전

했다. 옆 교실에서 총성을 듣고 놀란 학생들과 교수들이 급히 학생들을 대피시켜 화를 면하기도 했다.

주위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성격으로 알려진 고 씨는 오이코스대학 간호학과를 다니다 6-7개월 전에 그만 둔 것으로 전해졌으나 그만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오이코스 대학은 2004년 김종인 목사가 설립한 대학으로 이스트 오�클랜드 에지워터 로드 에 위치해 있으며 신학, 음악, 간호학, 동양의학, 영어교육 학과가 있으며 200여명의 학생들이 이곳에서 공부하고 있다.

(정리:박준호 기자)

평화의 꽃심기 운동 전개

평화나눔공동체, 부활절 맞아

"부활의 기쁨을 교회를 넘어 복음을 모르는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나눠요!"

워싱턴DC 빈민가에서 15년째 노숙자선교와 인종화합선교를 하고 있는 평화나눔공동체(배석현 이사장)는 오는 4월 8일 부활절주일 오후 4시30분 뉴욕 애브뉴 크리스챤 센터(NORTH EAST 뉴욕 애브뉴와 FENWICK St. NW가 만나는 지점) 빈민가에서 "제14회 부활절기념 평화의 꽃심기 선교축제"를 갖는다. 이번 선교축제는 1)노숙자들과 가난한 이웃들에게 현장에서 기도를 해주며 영적제례를 나누는 PRAYER STATION 2)빈민지역 거리전도 3)빈민현장의 기도제목을 모아 기도하는 '행동하는 중보기도운동' 4)빈민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찬양선교와 부활절선물나누기 5)빈민거리 꽃심어주기 행사와 거리환경미화선교로 나눠 진행된다.

PRAYER STATION 선교는 국제예수전도단 메릴랜드 베이스(대표 윤재영 목사)를 중심으로 행동하는 중보기도선교는 인터내셔널갈보리교회(이성자 목사)를 중심으로 한인교회 중보기도팀들이 각각 맡는다. 빈민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부활절선교는 워싱턴DC 알파커뮤니티교회(조성환 목사)를 비롯 한인교회 전도팀들이 맡는다.

(기사제공: 평화나눔공동체)



LA비전교회에서 열린 7기 능력기도학교에서 김대준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미션능력기도는 모든 기독교인에게 필요"

GMCC선교회와 LA비전교회 공동주최 제7기 개강

제7기 미션능력기도학교가 27일 저녁 7시 LA비전교회(담임 김대준 목사)에서 GMCC선교회(대표 성형철 집사)와 LA비전교회 공동주최로 시작됐다.

첫날 진행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 김대준 목사는 "제7기 미션능력기도의 커리큘럼은 이론부분인 △미션능력기도의 배경 △미션능력기도의 원리 △미션 퍼스펙티브 △하나님의 음성과 분별 △세계선교의 이해와 전략 등과 사역의 실제부분인 성령의 기름부으심 △치유와 회복 △영적전쟁 △영적도해 △기도행진

△능력전도 그리고 실제적 대면부분으로 △인카운터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김 목사는 "예수님의 생애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이기 위해 교육과 전도, 치유사역을 하셨다. 미션능력기도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부르심을 깨닫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학습과 훈련을 통해 개발되어지고 시행돼야 할 행위이며 이 학습과 훈련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며 주님같이 부락하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미션과 기도의 능력 있는 리더들을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능력기도학교는 6월 19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12주에 걸쳐 진행되며 김대준 목사와 서하평 선교사가 주강사로, 김경환 선교사 최 민 선교사 등 선교현장경험이 풍부한 선교사들이 전담강사로 나서 세미나를 인도한다. 마지막 시간은 1박2일간의 수련회로 열리게 된다.

▲문의: (213)386-9191, (714)213-2882

(박준호 기자)



빈민지역 꽃심기 행사에 참여한 한인 청소년들



국제목양사역원 원장인 최홍준 목사가 목양장로사역 컨퍼런스 설명회를 인도하고 있다.

'목사와 장로의 행복한 동행'

30일, 목양장로사역 컨퍼런스 조찬모임

국제목양사역원 원장인 최홍준 목사(부산 호산교회 원로)가 '목사와 장로의 행복한 동행'이라는 주제로 지난 30일 오전 7시30분 JJ랜드호텔에서 LA지역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목양장로사역 컨퍼런스 조찬모임을 가졌다.

이번 조찬모임을 통해 최 목사는

호산교회에서 펼쳐왔던 목양장로 시스템과 그 열매들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홍준 목사는 "선배목회자들이 목회를 모범적으로 해오셨지만 정작 교회에서 장로의 역할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주지 못했다. 한국교회에서는 장로의 직무 등을 알려주

었지만 장로의 본질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아 교회 내에서 목사와 장로가 함께 교회를 세우나가는 관계가 아닌 대립관계로 변질돼 분장과 갈등을 일으키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장로는 영적인 부모이다. 가정에서 부모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소홀히 하지 않는 것처럼 교회에서 장로는 영적인 부모로서 성도들을 돌보아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장로제도가 있는 기독교의 모든 교단의 헌법에 장로의 직무는 '영적인 삶을 돌보는 것을 최우선으로 둔다'고 돼있다. 이는 목회자와 장로가 사역을 나눠 함께하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LA지역의 2012년 미주 목양장로 컨퍼런스는 9월경에 열릴 예정이며 최홍준 목사와 흥민기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 컨퍼런스를 인도하게 된다.

(박준호 기자)

목회서신

다시 쓰는 행복론

임지석 목사
(나성세계교회 담임)

히말라야 산자락에 위치한 부탄은 65만의 인구에 국민 소득이 1200달러 밖에 되지 않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세계 8위라고 합니다. 부탄의 국왕인 왕추크는 특별한 통치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국민의 총 행복도(Gross National Happiness)라는 개념을 만들고 이를 국정 운영의 지표로 삼았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GDP의 향상을 위해 노력할 때 부탄은 정신적행복지수(GNH)의 향상을 위해서 힘을 썼다는 말입니다.

국왕은 이를 위해서 60%의 국토를 숲과 푸른 산으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교육과 의료 부분에 최대로 예산을 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개발보다는 산림자원의 보호를 우선한 결과 산림과 천연자원이 가득한 나라로 보존되도록 했습니다. 관광자원을 통해서 엄청난 물질적 부유를 가져올 수 있지만 외국 사람들의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왕이 친히 숲에 있는 통나무집에 살면서 빈부의 개념이 없어지게 만들었으며 자연과 벗 삼아 사는 백성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로 국민의 평균수명이 20년 이상 늘어났고 국민의 행복도 또한 세계 상위권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부탄이 "지구상의

마지막 '상그리라'(천국)라는 명칭까지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행복에 대한 기준과 관점은 어떨습니까? 우리의 환경은 이러한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약육강식의 생존경쟁을 해야 하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삶의 환상은 매일같이 치열한 생존을 위한 전쟁터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질은 모으고 삶의 기반은 다져지고 있지만 가족과 가정을 잃어버린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행복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이제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시대의 흐름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는 영적 분별이 필요한 때입니다. 믿는 개인이나 가정이라 할지라도 성경적인 원리를 따르지 않으면 결국엔 행복한 개인이나 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의 복음은 진정한 행복의 원리를 교훈함과 동시에 행복 지수를 높이는 궁극적인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안내

| | | | | | | |
|---|---|--|--|--|--|---|
| <p>뉴욕셋째마리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신도회: 오후 8:30 새가족: 오후 5:30 교회기도: 오후 8:00</p> | <p>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신도회: 오후 8:30 새가족: 오후 5:30 교회기도: 오후 8:00</p> | <p>뉴욕빌라벨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재현 주일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신도회: 오후 8:30 새가족: 오후 5:30 교회기도: 오후 8:00</p> | <p>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철 주일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신도회: 오후 8:30 새가족: 오후 6:30</p> | <p>뉴욕순복음안다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 오전 8:30 수요예배: 오전 11:30 신도회: 오후 8:30 새가족: 오후 6:30 교회기도: 오후 8:30</p> | <p>뉴욕중부교회 담임목사: 김재현 주일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9:30 수요예배: 오전 11:30 신도회: 오후 8:30 새가족: 오후 6:30 교회기도: 오후 8:30</p> | <p>뉴욕주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예배: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0:30 수요예배: 오전 11:00 신도회: 오후 8:30 새가족: 오후 6:00 교회기도: 오후 8:00</p> |
| <p>뉴욕호산장로교회 담임목사: 문석호 원로목사: 박지갑 1부일예배: 오전 7:15 2부일예배: 오전 8:30 3부일예배: 오전 10:15 4부일예배: 오전 12:00 5부일예배: 오후 1:30 6부일예배: 오후 7:30 7부일예배: 오후 8:30 새가족: 새벽 8:00(월-토)</p> | <p>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박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8:00 신도회: 오후 8:30 교회기도: 오후 8:00 (새가족: 오후 8:00)</p> | <p>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30 신도회: 오후 8:30 새가족: 오후 6:30 교회기도: 오후 8:30</p> | <p>폰아일랜드성결교회 담임목사: 김석형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12:30 수요예배: 오후 8:30 신도회: 오후 8:30 새가족: 오후 6:30</p> | <p>메디슨교회 담임목사: 장동환 주일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 오전 8:30 수요예배: 오전 11:30 신도회: 오후 8:30 새가족: 오후 6:30 교회기도: 오후 8:30</p> | <p>어린양교회 담임목사: 김수백 주일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예배: 오전 12:30 신도회: 오후 8:30 새가족: 오후 6:30 교회기도: 오후 8:30</p> | <p>유니온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박재현 1부 기도예배: 오전 8:30 2부 기도예배: 오전 10:30 3부 기도예배: 오전 12:45 4부 기도예배: 오후 2:30 5부 기도예배: 오후 8:30 새가족: 오후 6:30</p> |
| <p>주비전교회 담임목사: 이규근 주일예배: 오후 12:30 새가족: 오후 6:30 신도회: 오후 8:30 교회기도: 오후 1:30</p> | <p>주신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용익 주일예배: 오전 12:00 주일학교: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신도회: 오후 8:30 교회기도: 오후 8:00</p> | <p>중부뉴저지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철호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30 신도회: 오후 8:30 교회기도: 오후 8:00</p> | <p>핀즈장로교회 담임목사: 박규성 주일예배: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0:30 수요예배: 오전 12:30 신도회: 오후 8:30</p> | <p>핀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철 주일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9:30 수요예배: 오전 11:30 신도회: 오후 8:30 교회기도: 오후 8:00</p> | <p>한미음침례교회 담임목사: 박재일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2:30 수요예배: 오후 8:30 신도회: 오후 8:30 교회기도: 오후 8:30</p> |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985-0709 New York: Tel. (212)856-4600 Fax: (718)886-0074</p> |
| <p>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박경남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교회기도: 오후 8:40</p> | <p>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종현 주일예배: 오전 9:0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교회기도: 오후 8:45</p> | <p>브라질 새사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예배: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0:30 수요예배: 오전 12:30 신도회: 오후 8:30 교회기도: 오후 7:30</p> | <p>아르헨티나 제임교회 담임목사: 최병현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30 신도회: 오후 8:30 교회기도: 오후 8:30</p> | <p>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박희상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30 신도회: 오후 8:30 교회기도: 오후 8:30</p> | <p>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병관 목사 파라과이선교본부 주일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1, 2, 3, 4, 5, 6, 7, 8, 9, 10, 11, 12)</p> | |

동부교계 게시판



PGM 중장기 선교사 훈련생 모집

PGM(국제대표 호성기 목사)이 7월 9일(월)부터 21일(토)까지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중장기 선교사 훈련생을 모집한다. 장기 선교사나 비거주 선교사 후보생 혹은 선교사 재훈련을 원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선교훈련 전문가가 선교지 내에서 실시하는 On-Site 훈련으로 교육과 실습을 겸하게 된다. 비용은 개인 300달러, 부부 500달러(항공료 제외). 강사는 양촌길 정인수 호성기 목사 등 미주 한인교회 지도자와 김종관 이규종 조길순 등 장기 선교사.

▲문의: (610)397-0484, 이메일: admin@pgmusa.org

교회성장 세미나

교회성장 세미나 강사 선우권 목사의 뉴욕과 뉴저지 말씀집회가 "히브리 민족의 문화 속에서 발견하는 복음"이란 주제로 열린다. 성경을 미드라쉬와 미쉬나의 각도에서 새롭게 조명하는 강의. 일정은 △4월 23(월)-25(수) 뉴욕큐가든성신교회(담임 이재봉 목사) △26(목)-29(주) 뉴저지새소망교회(담임 정인석 목사). 선우권 목사는 11년간 담임하던 수지제자교회를 최근에 사임하고 지난 3월 18일 충남 세종시에 세종누리교회를 개척했다.

▲문의: (718)441-9651, (201)242-9191

제 4회 "함께 걸음 한마당"

뉴욕말장애인선교단(단장 김자송)이 주최하는 장애인의 날 기념 제 4회 "함께 걸음 한마당"이 4월 21일(토)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뉴욕장로교회에서 열린다. 이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장애체험, 장애사역 세미나, 재미있는 코너놀이, 장기자랑 페스티벌 등이 진행된다.

▲문의: (718)445-4442

퀸즈장로교회 여전도회 연합수련회

퀸즈장로교회(담임 박규성 목사) 여전도회 연합수련회가 오는 9일(월)부터 11일(수)까지 포코노 하워드존스 호텔에서 열린다. 강사는 민경엽 목사(LA 나침반교회 담임). 주제는 "만선의 꿈을 이루라".

▲문의: (718)886-4040

교육전도사 청빙

커네티컷 주에 위치한 하트포트한인연합감리교회(담임 송성모 목사)에서 교육전도사를 청빙한다. 이력서를 sammuel72@yahoo.com 로 보내면 된다.

▲문의: (860)953-0141, (347)596-4724



뉴욕원로목사회 정기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원로목사회 새회장에 이성철 목사

27일 제10회 정기총회, 부회장에 김용해 목사

대뉴욕지구원로목사회(회장 박기태 목사) 제 10회 정기총회가 지난 27일 퀸즈한인교회(담임 이규섭 목사)당에서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1부 예배는 박기태 회장의 사회로 이규섭 목사가 "내게 주신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이어 진 성찬식은 박기태 목사가 집례하

고, 한진관 목사(퀸즈한인교회 원로) 축도로 마쳤다.

이어서 2부 회의에서는 각부 보고에 이어 실시한 임원선거에서 신입 회장에 이성철 목사, 부회장에 김용해목사가 취임했다.

(기사제공: 대뉴욕지구원로목사회)



가운데가 박종선 목사, 오른쪽은 이만호 담임목사부부

"날마다 천국 사는 교회되라"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박종선목사 초청성령집회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담임 이만호 목사)가 지난 30일부터 사흘간 박종선 목사(순복음의정부교회 담임)를 강사로 성령집회를 개최했다.

현재 순복음신학대학원 원장이며 기하성 증경총회장이기도 한 박종선 목사는 첫날 "모범 교회"(말 2:19-30)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모범이 되는 교회란 힘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앞서가는 교회"라며, "다른 말로 하면 '주의 종에게 자랑 거리를 만들어주는 교회'라고 말했다.

어릴 때부터 젊은 시절 말쑥꾸러기에 목회자로 거듭나기까지 수많은 간증을 소개한 박 목사는 "이런 이야기들이 단순한 간증으로 끝나서는 안되며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알려 한사람이라도 영혼을 구원

하는 일에 앞장서는 성도가 돼야 한다"며, "교회의 부흥이 모범교회를 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느끼는 이 천국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누리며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서로 믿어주고, 믿어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임을 누리며 날마다 천국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 교회 담임 이만호 목사는 지난 27일 열린 순복음세계선교회 북미총회 제 37회 정기총회에서 수석부회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뉴욕과 미주의 복음화, 성령화, 성사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이 목사는 "마지막대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성령운동을 일으키고 목회도 성령회를 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유원정 기자)

뉴욕기독교인연 새 회장에 김진화 목사 제14회 정기총회, "작지만 강하게...회원영입 최선"

뉴욕기독교인연합회(회장 김명옥 목사)가 지난 28일 플라싱 급강산 식당에서 2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갖고 제 14대 회장에 김진화 목사를 선임했다.

김진화 목사는 "작지만 강하게"라는 슬로건으로 내걸고 6개월 이내로 50명의 목사회원과 100명의 정회원을 증원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뉴욕사회나 교계에 새 희망과 새 비전의 바람을 일으키는

알찬 행사들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회장취임 소감을 밝혔다.

1부 예배는 김진화 목사 사회로, 기도 정순원 목사, 성경봉독 이명재 집사, 말씀 김명옥 목사, 헌금기도 이준성 목사, 축도 안창의 목사의 순서로 진행했다.

본 연합회는 한국에 한국기독교인연합회를 본회로 두고 있는 미동부연합회이다.

(정리: 유원정 기자)



뉴욕기독교인연합회가 정기총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이승만박사대뉴욕기념사업회 행사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사대부 선비들의 기독교개종에 큰 역할"

이승만박사대뉴욕기념사업회 경축예배 및 세미나

건국대통령이승만박사대뉴욕기념사업회가 지난 27일 뉴욕효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에서 이승만 박사 탄신 137회를 맞아 경축예배 및 우남학술세미나를 가졌다.

1부 예배는 고문 안창의 목사 인도로 기도 이사 김광성 장로, 성경봉독 사업부장 이재천 권사, 특송 음악부장 김영환 집사, 이승만 박사 육성방송(1942년 6월 13일 미국 소리로 방송),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마6:33)라는 제목으로 설교에 방지각 목사(공동회장), 축사 한창연 뉴욕한인회장 김영목 뉴욕총영사, 회장 한재홍 목사에게 공로패 수여, 광고 부회장 남태현 장로, 축도는 공동의장 황의춘 목사가 했다.

한편 동 기념사업회는 오는 10월 중순으로 예정된 제3회 미주총회 호스트로 결정됐으며 이날은 본

부의 이기수 회장과 김일주 사무총장, 미주 내 각 지역 지회에서도 참여하게 된다.

또 지난 2월 22일 가진 임원회에서 명예회장 김상모 목사가 우남이승만연구소 소장으로서 선출됐다. 예배 후에는 김상모 목사를 강사로 "사대부 및 선비들의 기독교 개종과 이승만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제 4회 학술세미나가 진행됐다. 김 목사는 세미나를 통해 이승만 박사의 독특한 신앙심과 애국애족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며, 특히 잘 알려지지 않은 이 박사의 옥중에서의 영어 및 성경 가르침을 통해 사대부 및 선비들의 기독교 개종에 큰 역할을 한 것에 대해 강의했다.

이날 회지 "뉴욕우남세계"도 배부됐다.

(정리: 유원정 기자)



이노비 후원 콘서트가 진행되고 있다.

이노비 후원을 위한 콘서트 성료

예술, 교육 비영리단체 이노비(EnoB, 대표 강태욱) 후원을 위한 콘서트가 지난 31일 맨해튼 텐리 갤러리에서 열렸다. 전 좌석이 매진된 가운데 열린 이번 이노비 베네핏 콘서트는 올해 한국대중음악상도 수상한 바 있는 재즈 피아니스트 송영주와 뉴욕의 재즈 뮤지션들이 함께 공연했다.

이번 콘서트는 2006년 설립해 사회적,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장애인, 저소득층 아동, 입원 환자 등을 찾아가 꾸준히 무료 음악 공연을 열어주고 있는 이노비의 기금 마련을 위해 기획됐다.

이노비는 오는 4월말 장애인단체들과 협연을 갖는다.

(정리: 유원정 기자)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Midwest 특징

- 직장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에서나 On-Line으로 전 과정의 학점과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 미국 체류비자 발급 F-1 Visa 발급(동반 자녀는 공립학교 무료교육)
- 수시 입학이 가능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토폴은 요구하지 않으나 ESL과정을 병행함)
-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인터넷 환경이 주어진다면 가능
- 인터넷 환경이 잘 안되는 지역 혹은 어려운 조건에서는 별도 교육방법
- 지역별 교수의 만남을 통해 개인별 학업지도와 학업상담, 진로상담

* 자세한 문의는 전화(636)327-4645 또는 이메일 usa@midwest.edu로 연락바랍니다.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Site:
7620 Little River Tnpk # 400, Annandale, VA 22003
Tel: (703)626-8712, (571)730-4750 wdc@midwest.edu

“탈북자 복송금지” 해외300인목사단 구성 10일 전세계 중국공관 앞서 난민협약추구 시위기도회

해외 300인 목사단 주최 중국 정부 탈북자 복송 전면금지 및 난민협약 추구를 위한 시위 기도회가 오는 10일(화) 오후 12시 전 세계 중국대

사관과 영사관 등 중국 공관 앞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이를 위한 기자회견이 지난 3일 오전 11시 미주 북음방송에서 남가주교계지도자들

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박희민 목사(해외300인목사단 대표), 손인식 목사(KCC간사), 송정명 목사(미기총 대표회장), 변영익 목사(남가주교협회장), 김정환 선교사(남선협 회장) 등 교계지도자들은 이번 기도회 및 시위 배경은 세계리더로 부상한 중국이 국제난민협약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보느라 중국으로 탈출한 탈북자들을 복송하는 것은 그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을 너머 죽

으로 모는 비인간적인 행위라고 지적하며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300 목사단을 구성하여 전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교계 지도자들은 “전 세계 50개 국가에서 동시에 열리는 시위 기도회로 인해 중국의 비인간적인 행태를 규탄하는 여론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 더 이상 탈북난민들이 체포돼 복송되는 일이 중단될 수 있도록, 나아가 북한이 개방돼 한국이 통일되는 일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희민, 송정명, 변영익, 손인식 목사 외에 김영길, 엄영민, 김인식, 강순영, 한기홍, 박신욱, 김정환, 민경엽 목사 등이 참석했다.

(박준호 기자)



중국정부 탈북자 복송 전면 금지 및 난민협약 준수 촉구를 위한 시위 기도회 기자회견에서 손인식 목사가 설명하고 있다.



LA사랑의교회에서 열린 제4차 의료사역축제 현장

“주안에서 건강으로 가는 길” 주제 LA사랑의교회 제4차 의료사역축제 성황

LA사랑의교회(담임 김기섭 목사)는 ‘주안에서 건강으로 가는 길’이란 주제아래 지난 31일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 4차 의료사역 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의료사역축제에서는 피검사, 감상선 검사, 전립선암 검사, 골다공증 검사, 마모그림 등을 실시했다. 의료사역축제를 담당하는 본 교회 이정웅 장로는 “이민생활을 하다보면 의료혜택받기 힘들다. 병원을 찾아 의사를 만나고 1년에 한번 건강 체크를 해야 하지만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한인들과 지역주민들을 위해 이 행사를 해마다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로는 “이번 검사는 기초적인 예방을 위해 필수적인 것을 하

고 있으며 실제로 검사하고 있다. 마모그림은 주정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조인해 신승종 박사팀과 함께 해마다 하고 있다. LA에서 의료사역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에 반응이 좋다”고 전했다. 이번 의료사역축제는 LA사랑의교회의 모교회인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17년 전에 시작해 현재까지 개최해오고 있으며 LA사랑의교회에서는 3월에,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는 11월에 의료사역축제를 열고 있다. 한편 LA사랑의교회는 바쁜 이민 생활로 인해 소홀히 할 수 있는 건강에 대한 예방 등을 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를 위해 의료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준호 기자)



생명의전화 상담봉사원 훈련세미나 수료감사예배에서 16기 교육생들이 전서하고 있다.



미주장신대 2012년 봄 신앙 사경회에서 풀러신학교 교수인 시양 양 탄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21C 목회자 지도력과 영성” 주제 미주장신대 2012년 봄 신앙 사경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 2012년 봄 신앙 사경회가 개최됐다. ‘21세기 목회자의 지도력과 영성’이라는 주제로 시양 양 탄 목사(풀러신학교 교수, 제일복음주의교회 담임)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개최된 본 사경회는 지난 29일 오전 9시부터 저녁9시까지 성황리에 진행됐다.

“21세기 목회자의 지도력 개발”이라는 주제로 열린 오후 사경회에서 시양 양 탄 목사는 “기독교 리더십은 섬김을 지향하며 진정한 섬김을 보이는 것이다. 진정한 섬김은 △우리마음 깊숙이 있는 예수님과 같은 진교하는 것 △작은 섬김과 큰 섬김을 구분하지 않는 것 △우리가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서 섬

기는 것에 만족하는 것 △결과에 대해 계산하는 것에서 자유로울 것 △공평하게 섬기는 것 △모든 생활에 종된 마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리더는 예수님과 더 닮아가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온전한 섬김을 통해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리더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사경회는 오전과 오후로 나눠 ‘21세기 목회자의 상(像)과 역할’, 저녁사경회는 ‘21세기 목회자의 영성개발’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이상명 총장이 기도회를 인도하고 각 그룹으로 나눠 조별토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박준호 기자)

생명의전화 13년간 33,209통 받아 상담봉사원훈련세미나 수료감사예배

생명의전화(원장 바다윗 목사) 상담봉사원 훈련세미나 수료감사예배가 지난 27일 저녁 7시 한미장로교회(담임 이운영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예배는 50시간 이상 봉사를 한 강양임 상담원을 비롯한 6명의 15기생들과 박애영 교육생을 비롯한 46명의 16기생들에 대한 수료감사예배로 드러졌다. 바다윗 목사의 사회로 시작돼 14기 상담봉사원 조정훈 목사가 기도를, 16기 상담봉사원 회장 박선희 집사가 성경봉독을 했으며 박은오 전도사가 특송을, 16기 상담봉사원 서오석 목사(나성평화교회 담임)가

‘저녁에는 울음 아침에는 기쁨’(시 30:4-12)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수료증 수여시간을 통해 15기 상담임상수료자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했으며 16기 상담봉사원의 선서가 있었다. 이날 예배는 운영위원 이용덕 목사(LA벤엘장로교회 담임)의 축도로 마쳤다. 바다윗 목사는 “지난 13년 동안 인생의 어려움을 토로한 상담전화는 33,209통에 달한다”고 보고하며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West

이지션 자매초청 간증집회

새누리교회(담임 손경일 목사)는 이지션 자매 초청 간증집회를 4월 13일(금) 저녁 7시30분에 개최한다. ▲문의: (650)210-0000

CRC교단 기도서밋

CRC(북미주개척교회)가 한인들 주도로 교단 사상 최초의 ‘기도서밋’(Prayer Summit) 행사를 오는 4월16(월) 정오부터 18일(수) 정오까지 ANC 온누리교회(담임 유진소 목사)에서 개최한다. 등록비는 100달러이며 학생은 50달러. ▲문의: (562)804-2424

2012 VBS 교사강습회

어린이전도협회 한인지회(대표 여병연 목사)는 서부지역 여성성경학교 교사강습회를 14일(토) 뉴비전교회(담임 이진수 목사), 21일(토) LA사랑의교회(담임 김기섭 목사), 5월12일 남가주사랑의교회, 5월19일 타코마중앙장로교회(담임 이형석 목사)에서 개최한다. ▲문의: (213)382-1544

임마누엘 장학금 24명에 수여식

‘나는 기쁨! 돌보는 보람! 누리는 축복!’을 목표로 출범한 임마누엘장학회(ISF)는 지난 30일 월드미선대학교(총장 임동선 박사) 강당에서 2012학년도 장학금 수여 축하에 이어 장학증서 및 장학금 수여식을 거행했다. 이날 미주내의 복음주의 신학대학(원)과 멕시코에 있는 원주신학대학 등 도합 24명의 신학생들에게 장학증서와 소정의 장학금이 각각 전달됐다.

사업단체로서 금번 장학금수여식까지 도합 116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이날 행사는 장철의 목사(동 회 이사장)의 장학회 설립경위와 취지 설명에 이어 백지영 목사(솔로몬대학 총장)의 권면과 조성출 선교사의 축사, 강순영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기사제공: 임마누엘장학회)



임마누엘장학회에서 실시한 장학금수여식을 마치고 참가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오레곤 밴쿠버교연 부활절연합새벽예배

남가주 각 지역에서 한인교회협의회들이 주관하는 부활절 연합새벽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레곤에서도 밴쿠버 한인교회연합회 주관으로 열리는 부활절 연합새벽예배가 예정돼 있다. 8일 부활주일 새벽 6시에 4개 지역에서 일제히 개최된다. 각 지역 장소와 일정은 다음과 같다. (박준호 기자)

| 지역 | 장소 | 장소 | 연락처 |
|-----|-------------------|--|---------------|
| 비버튼 | 벤엘장로교회(이돈하 목사) | 18370 SW Shaw st. Aloha OR 97007 | (503)649-3990 |
| 강동 | 임마누엘 장로교회(신종식 목사) | 11501 SW Sunnyside Rd Clackamas OR 97015 | (503)644-0191 |
| 밴쿠버 | 밴쿠버 기독교교회(최철우 목사) | 7701 SW NE Ward Rd Vancouver WA 98682 | (360)852-5882 |
| 유진 | 유진 한인장로교회(고유근 목사) | 1600 Taney St.Eugene OR 97402 | (541)344-4400 |

SAINT MISSION UNIVERSITY

목사 · 선교사 후보생 장학생 모집

www.saintmu.us

3407 W 6th St, # 705 Los Angeles CA 90020
213-251-0191, 213-514-0037 saintmu10@gmail.com

Since 1999 **HYM** 남가주영년연합회 www.hym.cc

제26회 남가주영년연합회

IMPOSSIBLE

But my life is worth nothing to me unless I use it for finishing the work assigned me by the Lord Jesus the work of telling others the Good News about the wonderful grace of God. [Acts 20:24]

일사: 2012년 4월 21일(토), 22일(주일) 오후 7시

장소: 인랜드교회 (Inland Church)

강사: 첫째날 윤대혁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부목사)
둘째날 박형은 목사 (동양선교교회 담임)

HYM: T) 714.393.5135(Douglas Kim 대표), 323.459.9832(전경희 목사) / hym21c@hotmail.com
 인랜드교회: T) 909.622.2324 /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 www.inlandchurch.org

한기총 비대위 별도조직...결국 분리 '한국교회연합' 창립, 대표회장 김요셉 목사

[미션라이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홍제철 목사)가 결국 두 조직으로 갈라졌다. 한기총 집행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유중현 목사)는 마침내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이라는 별도조직을 만들어 29일 오후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공식 출범했다. 이날 총회는 개회예배와 경과보고, 규약·운영체제·선거관리규정 심의, 대표회장 선출, 안건 토의, 창립총회 선언문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한교연은 창립선언문을 통해 "현

재 한국교회는 우리 사회의 존경과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며 교회연합운동조차도 세속화된 모습으로 변질돼 교회는 물론, 사회 속에서도 비판을 받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또 "지금의 새로운 연합의 틀과 내용이 필요한 때이며 이러한 부르심에 응답해 우리는 주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길을 가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한교연은 예장 통합과 고신, 대신, 합신, 백석 등 20개의 교단과 기독교 시민운동중앙협의회, 한국외향선교회 등 4개 단체가 대의원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강경원(예장 대신 총회장) 목사는

창립취지 설명을 통해 "한교연은 완전한 새로운 조직이라는 의미보다는 한기총을 정상화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초대 대표회장에는 예장 대신 교단의 김요셉(65·서울 선린교회) 목사가 선출됐다. 이정익(신촌성결교회)목사와 경선을 치른 김 목사는 2차 투표에서 142명의 대의원 중 74표를 얻었다. 김 대표회장은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을 역임하고 한기총 사회위원장 등을 거쳐 오랫동안 한국교회 연합운동에 참여해 왔다. 김 목사는 "그동안 실추된 한국교회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모든 일을 성경 말씀의 토대 위에서 추진하고, 특히 한국교회를 공격하는 모든 안티 세력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교연이 한국교회 제3 연합기구

로 성장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특히 '선 출범 후 총회 인준'이라는 절차로 출범을 하는 만큼 각 교단 정기총회에서 차질 없이 인준을 받는 것이 한교연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회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 이종윤(서울교회) 원로목사는 '우리가 회복해야 할 나라'(행1:6~8)라는 제목으로 "교회와 성경을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이 교회를 만들었다"며 "진리 되신 예수님을 올바로 증거하는 한교연이 되길 기원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한교연은 상임회장에 유중현(예장 백석 총회장)목사를, 김윤기(예장 개혁신교 전 총회장) 목사 등 60여명을 명예회장과 공동회장, 부회장, 상임위원장, 사무총장에 각각 선임했다.

"목사님, 교인정보 안전하게 잠그셨습니까?" 3월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안녕하세요. OO교회 다니시죠? 여기 OO후보 선거사무실인데요. 총회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 이종윤(서울교회) 원로목사는 '우리가 회복해야 할 나라'(행1:6~8)라는 제목으로 "교회와 성경을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이 교회를 만들었다"며 "진리 되신 예수님을 올바로 증거하는 한교연이 되길 기원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한교연은 상임회장에 유중현(예장 백석 총회장)목사를, 김윤기(예장 개혁신교 전 총회장) 목사 등 60여명을 명예회장과 공동회장, 부회장, 상임위원장, 사무총장에 각각 선임했다.

교회 홈페이지 등의 교인정보 유출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만약 위저는 얼마 전에 같은 교회에 등록된 OO라든가 2년-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연구원은 교인 정보보호를 위해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반드시 감안해야 할 사항으로 교인 필수정보만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수집목적과 다르게 제3자 제공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인 정보 이용 후 이를 반드시 파기하고 CCTV 운영 시에도 안내관 설치 등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성남 할렐루야교회와 서울 사랑의교회, 대학연합교회 등은 교회 홈페이지에 이같은 내용을 적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최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한 교인 정보 유출의 심각성을 알리는 공문을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동현 목사는 "공공기관이나 일부 사업자에게만 적용됐던 개인정보보호 의무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기관과 단체, 사업자, 소상공인 등으로 대폭 확대됐다"며 "교회도 예외는 아니다. 교인들이 법외로 인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국교회는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교회정보 관리의 신뢰성이 곧 교회의 신뢰성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와 목회자들의 관심이 더욱 요청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난주간엔 '미디어 금식'을... 팻머스문화선교회 '미디어회복 캠페인' 전개

팻머스문화선교회는 올해 고난주간을 맞아 '고난주간 미디어회복 캠페인'을 벌였다. '미디어 회복운동'은 미디어를 완전히 끊는 미디어 금식과는 조금 다르다. 무분별하게 이용하던 미디어 사용을 줄이고 영적 건강을 위해 미디어를 가려 먹자는 것이 취지다. 지난해부터 미디어 금식에서 미디어 회복으로 수정했다. '미디어 금식'의 현실적 버전인 셈이다. "기독교적 관점과 세계관의 견지

에서 볼 때 미디어는 반기독교적이며 받아들일 수 없는 유해한 요소들이 많아 그동안 TV를 없애자는 등 많은 운동을 펼쳐왔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1주일만이라도 미디어의 주인이 우리임을 알고 주권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7년째 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선광목 대표의 설명이다. 이 선교회는 올해도 어김없이 1일부터 8일까지 '우리는 미디어로 금식한다'는 슬

로건으로 캠페인을 벌였다. '21세기형 문화금식'인 이 캠페인은 '밤(음식)'보다 우리 생활 가운데 즐기는 텔레비전, 영화, 인터넷, 스마트폰 등 미디어 사용을 절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즉 미디어는 가려서 섭취(시청, 독서)하고 대신 예수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며 일상을 보내는 것이다. 이를 통해 크리스천들은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고통과 사랑을 묵상하고 경건하게 보낼 수 있다. 캠페인의 실천은 간단하다. 우선 서약서인 미디어헌신서를 통해 개인이 결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올 한 해에 서약서를 TV나 컴퓨터

터 등에 붙여놓은 뒤 개인마다 이를 지켰으면 사인을 하고 1주일 후 교회로 가져간다. 교회에서는 다른 참가자들과 서약서를 확인하고 잘 지켜진 것에 대해 박수로 축하해 준다. 미디어 금식으로 확보된 시간은 영적 충전의 기회가 됨은 물론 가족의 관계회복을 위한 기회도 된다. 선 대표는 "고난주간 문화·미디어 회복 캠페인에 모든 크리스천들이 동참함으로써 올바른 크리스천 문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크리스천문화 부흥의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 신앙적으로도 당연히 거부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윤희구 목사)도 "응급 피임약은 생명이 가는 길을 방해하며 자라는 청소년들의 성의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밖에 남북조찬기도회(삼일대표회장 김윤기 목사)와 생명목회협의회(대표회장 박기철 목사) 등 교계 기관·단체들도 "이런 검토는 성개방의 다른 표현에 불과하며 서울우 학생인권조례 경우처럼 임신·출산이나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고, 신앙적으로도 당연히 거부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윤희구 목사)도 "응급 피임약은 생명이 가는 길을 방해하며 자라는 청소년들의 성의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밖에 남북조찬기도회(삼일대표회장 김윤기 목사)와 생명목회협의회(대표회장 박기철 목사) 등 교계 기관·단체들도 "이런 검토는 성개방의 다른 표현에 불과하며 서울우 학생인권조례 경우처럼 임신·출산이나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사후 피임약 처방 없는 판매" 교계, 정부 방안검토에 "생명경시" 반대

한국 정부가 응급(사후) 피임약을 처방 없이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교계는 "생명경시 행위를 중단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낙태반대운동연합(낙반연·회장 김현철 목사)은 29일 "응급 피임약 일반약 전환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응급 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을 요청한 단체들이 주장하는 근거가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낙태예방을 위해 응급 피임약의 접근성이 높아지는 것이지만 그 모든 의미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낙반연은 "응급 피임약을 처방 없이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대와는 달리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준비되지 않은 임신을 늘리며 불법적인 낙태를 고민하게 만든다"면서 "응급 피임약은 말 그대로 응급할 때만 전문의의 진단과 처방과 상담을 거쳐 구입

할 수 있도록 제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회연론회(대표 김승동 목사)도 "응급 피임약은 낙태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응급 피임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하면 성의 문란이 오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처방전 없는 응급 피임약 판매 추진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미래목회포럼(대표 정성진 목사)도 "사후 피임약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면 청소년들을 무분별한 성문화에 노출시킬 위험이 크다"면서 "사후 피임약은 초기 인간의 생명을 죽이는 문제를 야기하며 그것은 윤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

고, 신앙적으로도 당연히 거부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윤희구 목사)도 "응급 피임약은 생명이 가는 길을 방해하며 자라는 청소년들의 성의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밖에 남북조찬기도회(삼일대표회장 김윤기 목사)와 생명목회협의회(대표회장 박기철 목사) 등 교계 기관·단체들도 "이런 검토는 성개방의 다른 표현에 불과하며 서울우 학생인권조례 경우처럼 임신·출산이나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장애인을 잃어버린 한국교회 4월 장애인의 달... '장애인선교' 적극 나서야

[미션라이프] 장애인의 달 4월, 한국교회의 장애인 선교 현주소는 휠체어를 탄 성도를 통해 여실히 드러난다. 이를 배려해 전용토로를 설치한 교회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교회의 장애인에 대한 관심 부족은 예산 책정에도 여실히 나타난다. 일부 교회를 제외하고는 장애인 예산이 아예 없다. 장애인 선교와 복지에 무신경한 것이다. 현재 국내 장애인 복음화율은 5%

미만에 그치고 있다. 비장애인 복음화율 20%대에 비하면 아주 낮은 수치로 기독교인들이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목회자들은 장애인 선교가 제대로 되려면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게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교회는 장애인을 영적 회복의 대상으로 여기고 장애인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교회학교에선 장애 아동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통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지역 장애인의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함께 하는 나눔 행사를 다양하게 열어 관심을 끌고 있다. '장애인을 잃어버린 교회' 저자 안교성 장신대 교수는 "장애인은 동등 대상이 아니라 선교 대상"이라며 "우리교회에 출석하는 장애인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고 이점이 휠체어를 타는 높은 문턱부터 없애 버려야"고 말했다.

기성, 총회 모든 임원 단독 입후보 부서기는 4월 9일 추가등록 받기로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주남석 목사)가 106년차 총회 후보 마감 결과 모든 임원이 단독 입후보했다. 총회장에는 박현모 목사(서울 대신교회)가, 목사부총회장에는 조일래 목사(인천 수정교회)가 등록했다. 장로부총회장에는 윤완혁 장로(부평 제일교회)가, 서기에는 박현식 목사(시흥 목감교회), 회계는 신욱우 장로(순천교회), 부회계는 김경호 장로(서울 흥은교회)가 지원했

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서류심사 후 늦어도 5월초까지 입후보 등록 사항을 공고하며, 5월6일부터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부서기는 입후보자가 없어 9일 추가등록을 받기로 했다. 목회 안수를 받은 지 15년 이상 된 목회자로 교회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등기하고 10년 이내에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않으면 지원 가능하다.

"찬송가 출판권 침해" 4개 출판사 등에 벌금형

찬송가 출판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전현직 (재)한국찬송가공회(이하 찬송가공회) 임원과 출판사 대표, 출판사에 1심에서 각각 1000만-30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찬송가공회가 불법적으로 타 출판사와 찬송가 출판 이중계약을 해 피해를 입었다"며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대한기독교서회와 예장총연합회가 유리한 고지에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9일 "2007년 9월 대한기독교서회와 예장총연합회는 찬송가공회와 3년 약정 출판권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독점적·배타적으로 출판할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그러나 야가페와 성서원, 생명말씀사, 두란노 등 4개 출판사는 출판권을 지닌 대한기독교서회와 예장총연합사의 사전승낙이나 사후 승인 없이 출판행위를 했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찬송가공회 역시 4개 출판사로부터 받은 출판계약서와 관련해 2개 회사와 아무런 사전협

의나 공동경수도 거치지 않았다"면서 "따라서 야가페(찬송가공회 이사장) 황승기(찬송가공회 전 이사장) 김영진(성서원 대표이사) 김재권(팀점적·배타적으로 출판할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그러나 야가페와 성서원, 생명말씀사, 두란노 등 4개 출판사는 출판권을 지닌 대한기독교서회와 예장총연합사의 사전승낙이나 사후 승인 없이 출판행위를 했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찬송가공회 역시 4개 출판사로부터 받은 출판계약서와 관련해 2개 회사와 아무런 사전협

SAM CARE 샘 복지재단
"강을 건너 새끼 새끼로"
대표 박세록 선교사
이메일 samcareusa@gmail.com
Tel. (714)870-1101
1309 W. Valencia Dr. #A Fullerton CA 92833

Reformed University U.S.A
미주개혁대학교(원) www.reformeduniv.org

SEVIS I-20 FORM 발행
신학과 / 선교학과
기독교교육학과 / 목회상담학과
사회복지학과 / 유아교육학과
종교철학과 / 문화철학과

Toll Free 1-800-281-2123
E-mail: reformedunivusa@reformeduniv.org
TEL: (714)796-9630 FAX: (714)796-9634

www.theonehall.com
The One Banquet Hall
one love...one life...

1%의 차이가 영생을 만듭니다
The(원) 결혼식, 돌잔치, 세례나, 각종행사

아로마센타5층
213-387-7575
3680 Wilshire Blvd, 5Fl, L.A., CA 90010

전미주와 해외 44개국에 복음을 실어 나릅니다.

전미주 및 해외연인 교회 주소를 수북 신청서

교회 기독교 기관, 기독교연인 선교회, 신학교, 기도원 및 수양관

보내실곳

NY: 145-17 Franklin Ave. #206
Rushing, NY 11355
Tel:(718)686-4400 Fax:(718)686-0074
E-mail: NY@chpress.net

LA: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66
E-mail: LA@chpress.net

| | | |
|-----------------------------|-----------------------------|--|
| <input type="checkbox"/> 신규 | <input type="checkbox"/> 변경 | <input type="checkbox"/> 추가 변경전 전화번호 () |
| ① 교회(기관) 이름 | 한글: _____ 영문: _____ | |
| ② 교회(기관) 주소 | _____ | |
| ③ 교외전화 & 팩스 | Tel() _____ | Fax() _____ |
|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 한글: _____ | 영문: _____ |
| ⑤ 사목주소 | _____ | |
| ⑥ 사목전화 & 팩스 | Tel() _____ | Fax() _____ |
| ⑦ E-mail Add. | @ _____ | |
| ⑧ Web Add. | http:// _____ | |
| ⑨ 소속교단(정확하게) | _____ | |

*위의 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로 보내주세요 번은 해당사항에 표시하십시오

GRAND OPENING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국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설교/비디오 복사

SONY PHILIPS LG
BLANK CD
BLANK DVD
SALES

공 디스크 저가판매!
자동형 복사 프린터
BURN + PRINT

초간편 복사기
정도송-볼티슈 판매

TOLL FREE: 1-866-817-4094 (ext. 101 or 102)
www.produplicator.com
4010 Valley Blvd., #105, Walnut, CA 91789

생명말씀사
Word of Life Books

미주 최고의 ONE STOP 기독교 및 학생

2707 N. Myrtle Blvd., #100 Los Angeles CA 90008
TEL: 818.982.4884 Fax: 818.982.4184 Email: wordoflife@earthlink.net

www.lifebook.co.kr

로스앤젤레스 지사 워싱턴DC 지사

TEL. 800.347.7057 TEL. 800.228.2928

세계를 넘어가는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기독교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바랍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 N.Y.: Tel. (718)686-4400, Fax. (718)6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선교지 편

북한선교

우리 북한 동포들의 유일한 소망이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바라며, 2012년 3월 북한선교 기도 소식을 알려 드립니다.

'탈북자 강제복송'문제

지난 한 달 동안은 중국 공안에 붙잡힌 탈북자들이 강제복송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여러 일들이 한국과 세계 각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강제복송을 막지 못하고, 결국 그분들은 가혹한 고문과 죽음이 앞에 기다리고 있는 북한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지난 1990년대 중반 이후 식량을 구하기 위해 또는 자유를 찾아 북한을 떠나 중국 땅을 밟은 탈북민들은 수십만 명 이상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들은 중국 땅에서 머무르며 북한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한 식량을 구하기도 하며, 때로는 제 3국을 거쳐 한국과 자유의 땅으로 들어가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인 북한 동포들은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원인제공자인 김정은 정권의 소수 특권층들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

수십만 명이 짐승보다 못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살아있는 지옥과 같은 곳입니다.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눈앞에 두고 지옥 같은 고통에 인간의 기본적 의지마저 빼앗긴 채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실낱 같은 희망, 누군가 그들의 고통을 건져내 주길 기도하면서 우리의 동포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한에 가져오는 변화

북한의 3대 세습통치자인 김정은은 탈북자에 대해 유독 적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의 독재체제를 흔드는 가장 큰 위협요소가 탈북자들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와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외부세계의 정보는 북한 정권의 그동안의 거짓을 드러내주며 북한의 사회의 변화에 대한 열망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의 공식적 지원은 중앙차원의 통제 하부 인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았지만, 탈북민들이 가족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식량과 물질은 정권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는 힘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탈북자 강제복송'접근

최근 산발처럼 일어나고 있는 탈북자 강제복송 반대 움직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여론의 감정적인 호소에 의해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중국과 북한이 계속 주장하는 것처럼, 자국법과 국가간 협약에 의해 이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탈북자 강제복송 반대는

주권침해이며 국제관습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도리어 항변합니다. 그러나 정치적 이용은 한 정당만이 아니라, 모든 정당이 각자의 입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점차 중요한 것은 탈북민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 가이며, 전체 탈북민들을 위해 장기적으로 어떤 노력이 중요한 것인가입니다. 또한, 법에 대한 문제도 국가가 정한 법이라도 그것이 정의에 위배된 것이라면, 그것은 국내에서든지 국외에서든지 그 잘못을 고치기 위해 반드시 노력해야 합니다. 정치는 이익에 의해 얼마든지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잘못된 의도로 결정된 법이라면 정의의 기준에서

끊임없이 수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와 외교가 이루어지는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서 모든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지혜롭게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탈북자 강제복송 반대'노력들



탈북자 강제복송 반대 시위 모습

지난 3월 20일 시카고를 비롯하여 워싱턴DC, 뉴욕, LA 등지에서 '탈북자 강제복송 반대'시위와 행진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에도 수고했던 탈북자 정착지원 단체인 ENoK(Emancipate North Koreans)과 함께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수많은 믿음의 식구들이 계획단계에서부터 실행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너무나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요.

무엇보다 이번에는 시카고 지역에 교회들과 여러 단체들이 협력하여 170여명이 행사에 참여하여, 탈북자 강제복송 반대와 북한자유를 위한 행진을 하였습니다. 봄방학을 맞은 어린 아이들을 함께 데리고 행사에 참여한 부모님들,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이르기까지 한마음으로 북한의 자유를 외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행진하였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말할 수 없는 북한동포들의 고통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해주시길 마음으로 간구하며 중국총영사관 앞에서 구호를 외쳤고, 시카고 다운타운 미시간 거리를 걸으며 호소했습니다. 오후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되었지만, 모든 분들이 더운 일기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열심히 참여하였습니다.

북한선교 사역 위한 참여

이제 미주 탈북민 지원을 위한



북한선교 사역 위한 참여 모습

사역, 중국 내 탈북민 지원 및 양육 사역, 북한 지하교회 사역 등을 위해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역들에 참여하길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은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녹 10:36-37, "네 생각에는 이제 사람 중에 누가 감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푸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기도제목

첫째, 중국에 붙잡혀 있는 탈북자들과 복송된 탈북자들에게 생명과 자유를 허락해주시고, 중국 정부가 국제인권 협약들을 지킬 수 있는 결단을 하도록 기도해주시시오.

둘째, 북한 땅이 개방되어 압제와 굶주림이 끝나고, 생명의 복음과 양식들이 풍성하게 전해지도록 기도해주시시오.

셋째, 중국과 여러 나라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탈북여성들과 고아들을 위한 사역이 더욱 활발해지고, 탈북민 사역이 체계화되어 북한선교와 세계선교의 일군으로 훈련하는 사역들이 발전되도록 기도해주시시오.

넷째, 미국 내 탈북민들의 신앙과 생활정착을 위한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역에 참여하는 한인교회와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도록 기도해주시시오.

다섯째, 북한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북한선교단체들과 선교사님들을 강건하게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주시시오.

저희 NIM(NorthKorea Inland Mission)도 이런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주시시오.

여섯째, 본격적인 북한선교와 통일시대를 위한 일군들과 자원들이 준비되고, 북한선교기관들과 교회들이 이를 위해 온전히 헌신하고 연합하여 그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주시시오.

NIM 대표 임현석 목사 드림
이메일: handsomelin@hanmail.net

선교사 멤버케어



황희숙 박사

(글로벌멤버케어센터 대표)

4. 멤버케어의 철학

멤버케어의 철학은 첫째,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를 돌보시는 공극적인 책임을 지신다. 둘째, 회원들은 서로를 돌보고, 격려하고 세워줄 책임을 가진다. 셋째, 보내는 교회(파송교회)는 멤버케어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주어야 한다. 넷째, 각 회원은 자신과 가족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다섯째, 행정가와 선교지도자도 그들의 사역자들을 돌보아야 할 책임을 져야 한다.

5. 멤버케어의 범위

선교사로 (1)허임 (2)임지로 가기 전 준비와 오리엔테이션 (3)사역 위탁과 배치 (4)예기치 않은 일들(사망, 도덕적 실패, 자녀들의 필요, 사회적 불안정, 전쟁 등) (5)본국으로 귀환, 안식년 (6)변화 (7)은퇴에 이르기까지 선교사의 전 생애를 포괄한다. 즉,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때로부터 선교사로 헌신하는 전 기간 동안에 선교사역을 효율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으로서, 선교사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과 선교사의 지원 스태프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6. 멤버케어 제공자

멤버케어의 흐름은 지역의 기독교 공동체와 예비 선교사들의 관계에서 시작해 그것이 동일 지역 공동체이든지 아니면 선교기관과의 관계로 이동된다. 이상적인 측면에서 지역 교회는 개인과 가족을 성장시켜왔으며, 그러므로 그것은 가시적 케어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해온 것이다.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통해서든 물론, 멘토들을 통해서 양성돼왔다. 이제 다양한 멤버케어 제공자들을 요청하며 선교사와 그 가족의 인생주

기에 있어서-모집으로부터 사역 은퇴/종결에 이르기까지-단계별로 이동하는 새로운 수준의 의도적 멤버케어가 출현하고 있다.

1)가족, 친구: 선교지 파송 전 경험에 있어서 적절한 자문의 기회를 갖고 새로운 환경에 이드록 돕는 절차가 필요하다.

2)선배 선교사: 건전하며 순회적인 멘토로서 타국에서의 삶과 영적 영향력이 된다.

3)선교단체: 선교 공동체에서 인력관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위임의 성취이며 친구에 대한 지대한 표현이다. 그것은 단순한 재정적 손실을 보호하거나 투자를 보장하는 것 그 이상이 되는 것이다. 선교 공동체에는 반드시 전문화되며 지속적인 후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4)현지 교제권 현지인 & 팀: 선교현장에서의 삶 속에서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건강을 위한 후원체계는 개인과 시간에 따른 유용성과 중요성에 의해 달라지며 현지인들과 더불어 팀의 일원들과 형성된 질적 관계는 중요한 후원의 출처가 된다.

7. 멤버케어 모델

선교사 멤버케어의 모델은 켈리 오도넬 등이 만든 "멤버케어의 최상의 실천 모델"을 활용한다. 이 모델은 기본적으로 마조리 포일(Majorie Foyle)로부터 초기 도움을 받아 켈리 오도넬과 데이브 폴락(Dave Pollock)에 의해 개발된 것이다.

모델은 상호 유입과 영향이 가능한 5개의 토과성원들로 구성되었다. 모델의 핵심에는 (1)주님의 케어 (2)자기/상호케어 라는 두 개의 기초적인 원으로 존재한다. 다음에 (3)가족 케어 (4)전문가 케어로서 각 전문가들의 케어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5)네트워크 케어(network care)로 구성되었다.

연락처 : dryks53@hotmail.com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안내 | | | | | | | |
|--|--|--|--|--|--|--|--|
|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Tel: (02)522-7787, Fax: (02)522-4228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36-27 |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계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지체예배: 오후 7:30 Tel: (02)121-6794-6, Fax: (02)121-6794-6 서울시 군포시 신성동 370-10호 | 금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Tel: (02)121-6794-6, Fax: (02)121-6794-6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40-1212번지 | 김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김동철 주일1부예배: 오전 7:4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차례예배: 오후 7:30 Tel: (02)121-6794-6, Fax: (02)121-6794-6 경기도 김포시 서곶동 20번지 | 광주신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기승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4부기도회: 오후 7:00 성서연구회: 오전 9:00 성서연구회: 오후 8:00 Tel: (02)121-6794-6, Fax: (02)121-6794-6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36-27번지 | 동경중앙교회 담임목사: 이강현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2:30 주일4부예배: 오후 5:30 Tel: (02)121-6794-6, Fax: (02)121-6794-6 2-10-4 Guro 2-cho, Tokyo, Japan | 든든안교회 담임목사: 장영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차례예배: 오전 11:00, 7:00 금요기도회: 오후 8:30 Tel: (02)121-6794-6, Fax: (02)121-6794-6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36-27번지 | |
|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현경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후 4:00 새벽기도: 오전 8:00(매일) Tel: (02)121-6794-6, Fax: (02)121-6794-6 VIA DEI QUARTI 32-38 00173 ROMA, ITALY | 명성교회 담임목사: 김삼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4:30 1부예배: 매일 Tel: (02)121-6794-6, Fax: (02)121-6794-6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40-1212번지 | 삼보교회 담임목사: 박정훈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 오전 8:00 Tel: (02)121-6794-6, Fax: (02)121-6794-6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40-1212번지 | 새연교회 담임목사: 소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수차례예배: 오후 7:30(매일) Tel: (02)121-6794-6, Fax: (02)121-6794-6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36-27번지 |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석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 오전 8:00 Tel: (02)121-6794-6, Fax: (02)121-6794-6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40-1212번지 | 성심교회 담임목사: 김명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Tel: (02)121-6794-6, Fax: (02)121-6794-6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40-1212번지 |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경곤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차례예배: 오전 8:30 지체예배: 매일 Tel: (02)121-6794-6, Fax: (02)121-6794-6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40-1212번지 | |
| 수영로교회 담임목사: 여규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Tel: (02)121-6794-6, Fax: (02)121-6794-6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40-1212번지 |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배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차례예배: 오후 7:30 Tel: (02)121-6794-6, Fax: (02)121-6794-6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40-1212번지 | 승문교회 담임목사: 박정훈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수차례예배: 오전 7:00 Tel: (02)121-6794-6, Fax: (02)121-6794-6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40-1212번지 | 사문소교회 담임목사: 김경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수차례예배: 오후 7:30(매일) Tel: (02)121-6794-6, Fax: (02)121-6794-6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36-27번지 |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선웅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Tel: (02)121-6794-6, Fax: (02)121-6794-6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40-1212번지 | 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02)121-6794-6, Fax: (02)121-6794-6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40-1212번지 | 안암제일교회 담임목사: 조운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수차례예배: 오후 8:30 Tel: (02)121-6794-6, Fax: (02)121-6794-6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40-1212번지 | |
|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차례예배: 오전 10:30(매일) 새벽기도: 매일 Tel: (02)121-6794-6, Fax: (02)121-6794-6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40-1212번지 |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자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차례예배: 오후 7:30 Tel: (02)121-6794-6, Fax: (02)121-6794-6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40-1212번지 |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 오전 5:00 금요기도회: 오후 8:30 Tel: (02)121-6794-6, Fax: (02)121-6794-6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40-1212번지 | 주안교회 담임목사: 나권일 주일1부예배: 오전 6:3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주일5부예배: 오후 4:30 수차례예배: 오후 7:30 Tel: (02)121-6794-6, Fax: (02)121-6794-6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40-1212번지 | 장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차례예배: 오후 5:00 Tel: (02)121-6794-6, Fax: (02)121-6794-6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40-1212번지 | 정주주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새벽 4:00 Tel: (02)121-6794-6, Fax: (02)121-6794-6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40-1212번지 |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준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차례예배: 오전 11:30 Tel: (02)121-6794-6, Fax: (02)121-6794-6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40-1212번지 | |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7)



2. 성격-이중문화적/이중언어적 교육

(Bi-cultural/Bi-lingual Christian Education)

정신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지난번까지는 우리 한인교회의 기독교 교육이 지닌 교회 중심의 교육(church centered education)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은 우리 한인 기독교 교육의 그 두 번째 성격인 "이중문화적/이중언어적 교육"(Bi-cultural/ Bi-lingual Christian Education)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이 두 번째 성격은 한인교회가 지닌 이민교회로서의 정체성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입니다. 즉 "한국을 그 본향으로 하지만, 미국으로 이민을 온 후, 현실적으로 밭 밟고 살아가는 삶의 장은 이곳 미국인 사람들이 모여 신앙 생활을 하는 신앙 공동체"라는 정체성 말입니다.

즉 한인교회는 본래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문화들을 공히 반영하며, 한국어와 영어라는 두 언어가 공존하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더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만큼 이는 이 땅을 사는 우리 한인들에게는 설명이 필요 없는 그저 당연한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한인교회를 그 장으로 하고 그 안의 성원들을 섬기는 우리 한인교회의 교육의 모습 또한 이중문화적이고 이중언어적인 성격을 띠어왔습니다.

우리 한인교회교육이 이중문화적이고 이중언어적이라는 것은 일견으로는 자연스러운 현상적인 진술

우리 한인 자녀들을 교육해야 하는 사명 때문에, 한인 교회교육이 더욱 극명하게 이중문화적이고 이중언어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었고, 이것이 자연스러움을 넘어서 필수적 당위라 여겨왔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한인들의 교육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은 더욱 극명하게 이중문화적이고 이중언어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1.5세, 2세 한인자녀들을 섬겨야 했기 때문에 미국의 문화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 그리고 한국 문화와의 가치 충돌과 이로 인한 정서적 현실적 불안과 혼란 등에 대한 고려를 그 교육에 녹여내야 했고, 또한 영어라는 언어를 교육과 소통의 매체로 담보해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양자 간의 문화적, 언어적 차이가 극명한 한인 부모들과 한인 자녀들 모두를 함께 섬기는데 있어서 그 공간을 교양 하는 역할 또한 감당해야 했으니깐요. 이에 우리 한인교회의 교육이 이중 문화적/언어적인 성격을 지녀왔던 것은 자연스러우면서도 또한 필연적인 것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현상학적으로 자연스러운 이중문화적이고 이중언어적인 교육은 우리 사역자들이 더욱 철저히 준비되어 임해야 하는 하나의 "사역적 지향"(ministerial orienta-

이중문화/이중언어 교육은 한인 이민교회 정체성 문제 사역자는 사명 갖고 이 엄청난 잠재력과 가치 이끌어야

(phenomenological statement)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살아가는 한인들이 양쪽의 문화를 그리고 양쪽의 언어를 그 삶에 담고 있으니 자연스레 그 삶과 신앙을 책임지는 교회의 교육 또한 양쪽 문화와 양쪽 언어를 담보해야 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한인 어른들은 한국 문화와 언어, 그 자녀들은 미국의 문화와 영어"라는 이분법적인 분류로 이러한 성격을 거론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한국 문화와 언어를 대표하는 한인 어른과 미국의 문화와 언어를 대표하는 한인 자녀들이 공존하기 때문에 한인 교회의 교육을 이중 문화적이고 이중 언어적이라고 성격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인 어른들이나 한인 자녀들이나 그 정도와 강도가 다를 뿐 양자 공히 이중 문화적이고 이중 언어적인 상황에 이르는 것입니다(일례를 들면, 한인 어른들에게는 이러한 것이 "한인 문화"로 나타나거나 문화적 갈등으로 표출되고, 스스로도 모르게 "영어 단어를 편하게" 섞어 쓰고 있거나 하는 것으로 나타나거나, 한인 자녀들에게 이러한 것은 2세 문화 혹은 1.5세 문화로 나타나거나, 문화가치의 충돌과 혼란 등으로 표출되거나, 영어를 쓰면서 한국어 단어를 섞어 쓰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차이). 따라서 한인 어른들의 실존적 상황도, 한인 자녀들의 실존적 상황도, 그리고 이들 양자 간의 관계적 양태도 모두 한인교회와 그 교육의 이중문화적 이중언어적 성격을 규정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더욱 전면적으로 미국 문화에 표출되어 있고 주로 영어로 공교육을 받고 있는

tion)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교육은 "이중문화 및 이중언어 지향적 사역"(bi-cultural and bi-lingual oriented ministry)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중 문화적/언어적 교육이란 것이 물론 현실적 요구에 부응한 자연 발생적인 사역의 형태인 것이 중요한 진실인 한편, 이제는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사역자들 쪽에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일할 필요가 있는, 우리 한인교회교육의 지향점들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현실이 그러하니까" 라는 측면도 아주 중요하지만 이에 더하여 이와 같은 교육의 성격이 지닌 엄청난 잠재력, 가능성, 가치, 혹은 의미 때문이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섬겨야 하는 이들을 이끌어야 하는 사명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육이 피교육자들의 삶의 상황을 고려하고 배려하는 측면에서 이중 문화적/언어적으로 행해지는 것 뿐 아니라 그들의 삶의 상황들이 그들의 인생에서 건강하게 건설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우리의 교육이 우리 사역자들이 앞서서 이끌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그리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일단 이중 문화적/언어적 교육이 우리 한인 교회의 지향이 될 필요가 있으며, 우리 한인들을 위한 중대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을 공유하는 것까지 하고 다음 번 이야기에서 그 구체적인 가치들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처: sinaichung@yahoo.com

매일가정예배

권영국 목사(LA대흥장로교회)

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마20:17-19)

19절엔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당하실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나옵니다. 주님은 원하기만 하면 그런 모든 고난과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요10:18).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이 고난의 잔을 마시고 묵묵히 골고다를 향해 나아가신 것입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

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이 말입니다(사 53:7).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대해 무조건 '예'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개의치 말고 오직 아버지의 뜻에만 충실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서면 무조건 받아들이고 따라갑니다.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는 이 단순한 신앙자세가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됩니다.

화 고난의 잔 (마20:20-28)

20절에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했다고 합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은 요한과 야고보를 말하고, 그들의 어머니는 살로메입니다. 그녀의 부탁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두 아들을 주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때 22절에 예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 잔은 고난의 잔이요 죽음의 잔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축복만을 구하고 영광만을 구하는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

지십니다. 그리고 이 대답 여하에 따라 우리의 실상이 드러납니다. 모양만 성도인 사람과 내용까지 성도인 사람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 자녀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받기 위해 고난에도 기꺼이 참여해야 합니다(롬8:17). 자녀이거든 주와 함께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영광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입니다.

수 지금의 기회 (마20:9-34)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두 소경이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30절). 그 외침은 자신들 목소리가 예수께 전달되도록 소리를 지르는 것이기도 했겠지만 그들만이 안고 있는 아픔을 토해내는 절규이기도 했습니다. 그 외침 속에 예수님을 만나려는 간절함이 배어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왜 그리도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합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환경이나 여건 때문에 불

행한 줄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불행합니다. 그러므로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곧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경은 '지금'이 은혜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가르칩니다(고후6:2). 두 소경처럼 주어진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님오신 후 후회하지 말고 여호와의 만날 만한 때에 찾고 부르시는 여려분 되시기 바랍니다.

목 쓰임 받는 중 (마21:1-11)

3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을 좇아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를 그 새끼와 함께 끌고 오려 할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예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은 일체 하지 말고 다만 "주가 쓰시겠다"고만 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친히 '주(Lord)'라 호칭하신 것은 성경에 여기뿐입니다. 여기서 '주'는 주인이나 소유주를 가리킵니다. 마 28:18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 말씀처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분의 소

유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주'의 개념 속에서 우리 성도 개개인에 대한 소유권도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전6:20). 주님은 만물의 창조자로서 또한 소유주로서 이 세계의 모든 것을 임의로 주관하는 분이시며 그분이 하시려는 일을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그 분께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금 깨끗한 성전 (마21:12-17)

본문은 예수님의 성전정화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성전정화사건은 주님의 공생애 사역 기간 중에 두 번 있었습니다. 본문 외에 요2:13-22에 기록된 것은, 공생애 사역초기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이미 주님의 사역초기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성전이 장사꾼들로 들끓고 있었다는 사실은 당시 유대종교가 얼마나 세속화돼 있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실례가 되기도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파는 자들

의 의자를 둘러앉으시면서 성전은 늘 거룩하게 유지 보전되어야 함을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를 교훈 받습니다. 성경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고전3:16).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 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몸을 함부로 사용하므로 죄와 불의로 더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토 무화과나무의 저주 (마21:18-22)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아침 일찍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발견하시고 혹시 열매를 얻을 수 있을까 해서 갔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그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성도는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함께 갖춰야한다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는 잎과 열매를 동시에 맺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무성한 잎을 보고 열매를 기대하시는 하나

님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운집할 정도로 신앙의 부흥이 있어보였습니다. 하지만 성전정화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들은 내적으로 경건의 능력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의 보이는 모습뿐만 아니라 그 능력도 갖추기 위해 늘 경건의 연습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겠습니까.

카리스 종합주석

NEW /원어 /배경 /주석 /강해 /One Stop Reading

카리스종합주석은 성경에 관한 모든 종류의 질문이 상호 긴밀한 연관하여 새롭게 통합 정리되어 있는 세계 최초의 저작입니다.

날권 \$30
전권 구입시 \$25 each

기독교인을 위한 최고의 선물

- 다니엘 전자성경
- 만나 전자성경

도서

신앙서적, 일반서적, 신간도서, 베스트 셀러, 가정/결혼, 교양/문화, 교회교육, 교회음악, 디지털바이블, 묵화와 신학, 성경/찬송가, 성서연구, 소프트웨어, 신앙생활, 신학일반, 실천신학, 어린이/청소년, 영적성장, 오디오북, 원서, 정기간행물, 전도/선교

음악

새로나온 음반, 베스트 셀러, 국내음반, 비디오/DVD, 악보, 어린이, 해외음반, 찬송가, 연주 음반

교회용품

목서 가운, 성가대 가운, 크리스탈 강대상, 강대상, 교회음악 선율용품, 시상/행사, 예배용품, 카드, 기타

HIS media 히스미디어에서 하는 일

교회를 건축하시거나 증축하실 때 미리 연락주시면 경비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의 가격으로 최대의 효과

- 철저한 에어드 서비스
- 좋은 화질의 제품, 저렴한 가격
- 소형에서 대형까지 무료 상담
- 멀티미디어 프로젝터와 스크린 판매 & 설치
- 음향/영상/조명장비 판매 및 설치
- Multimedia Projector & Screen 판매
- Consulting/Design/Set up

2300 Ansi Lumens \$699
2600 Ansi Lumens \$799
3000 Ansi Lumens \$899

그 외 다수의 밝기 모델 취급함

E7 미가엘 반주기

뛰어난 휴대성! 작고 바귀고 달린 기능!

- 선명하고 넓은 LCD 화면
- 원용액 가변용 연주
- 본체 고정용 스탠드
- USB 호스트 기능
- 오가드 사용
- 터치스크린 방식
- 실시간 연주영상

HIT 상품 미주총판

찬양반주기, 정경 DMB, 네미게이전 영화, 음악 FM라디오, 음성녹음 가능

미공동부 지사 획득! 특별세일!

엘리성구사

에어드수정강대상 EHAD CRYSTAL PULPIT LED LAMP를 설치한 빛나는 강대상 불타오르도록 디자인

크리스탈 성구사

최저가격 보장

성구사 3000 (50x30x40cm) 한국산인기타제품보다 4배 East Design 크기로 제작되었습니다. 대형에수교향로(참람) 자랑삼광안전제 선형

다양한 디자인으로 제작(100%가이전) 한국산(가이전) 100% 한국산(가이전) 100% 한국산(가이전) 100%

여의해도 다양한 특색정우와 크리스탈 성구사 있습니다.

주문처

성경, 찬송가 등 기독교의 모든것

할렐루야백화점

HALLELUJAH BOOKS, Inc.

인터넷 샵핑몰

www.gospelmail.com

NY 131-01 39th Ave., Flushing, NY 11354
Tel. (718) 762-0011/Fax. (718) 762-8402
1-800-404-1171

NJ 205 Bergen Turnpike Little Ferry, NJ 07643
201-373-0030

LA 옹양, 영행, 췌명 (213) 447-4011

정경, 찬송가 기독교서적 일반서적 영문기독교서적 강대상, 가운, 달력, 다이어리



제3기 이민목회 멘토링세미나

뉴욕

일시: 2012년 4월 24(화) - 25일(수)

시간: 오전 9시- 오후 5시

장소: 뉴욕 퀸즈한인교회 (이규섭목사)

강사: 손인식 목사

-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얼바인, 캘리포니아)
- 창조적 목회프로그램, 강렬한 설교와 영성사역, 현재 6천명 출석 성도
- 이민목회 가정사역 및 성장형 예배 주강사
- 교회성장 실험교실 주강사
- KCC/그날까지 선교연합 대표간사
- Washington Bible College/Capital Bible Seminary

주최: 디아스포라 이민 목회 연구원
 등록: 일인당 30불
 인원제한: 이민목회자 20명 제한
 (멘토링 세미나 특성상 인원제한)

미국에서만 35년째 목회하며 이민교회의 특성, 장점, 약점, 성장, 비전실현 등의 모든 과정을 걸어왔습니다. 현재 6천명의 출석성도, 250개의 셀교회, 43명의 목회진, 92개의 평신도 사역팀들이 한인교회의 건강한 모델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오십시오! 다 나누겠습니다!

목회 멘토링을 목말라하는 젊은 목회자들과 가슴을 열고 35년 목회를 돌아보겠습니다!!

■ 3기 이민목회 멘토링 세미나 참가 신청서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번호 (H) _____

(C) _____

이메일 _____

참가는 교회 _____

직책 담임목사() 부교역자()

연령(Age) _____

기도제목들: _____

신청서 보낼 주소 (베델한인교회):
 Attn: 김영빈 목사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체크보내주소: Pay to the order of: Bethel Korean Church



베델교회목회진

접수 안내

- 접수: 4월 20일까지 접수마감(선착순) / 반드시 등록비 동봉 접수
- 접수양식은 베델교회 홈페이지(www.bkc.org)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연락처: 김영빈 목사 (714-873-7315 / bethel4jx@gmail.com), 류태우 목사 (714-323-3931 / holynation2003@msn.com)
- 이메일: pastorsoffice@bkc.org

* 위의 신청서를 절취하신 후 등록비를 동봉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27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및 평신도 지도자 세미나



발행인 장영준 목사

주제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Take His Word, Return to The Lord!

주최 : 미주크리스천 신문

강사



김용도 목사
• 금란교회
• 주강사



소강석 목사
• 새에덴교회
• 주강사



권태진 목사
• 군포제일교회
• 주강사



황의영 목사
• SBM, 대표



현성덕 목사
• 캐나다 대회장



김기원 목사
• 장위제일교회



조일래 목사
• 수정교회



승용굴 목사
• 신천교회
• 현지준비위원장



이영섭 목사
• 불티모어교회



이명연 목사
• 나성서부교회



김승욱 목사
• 할렐루야교회



홍민기 목사
• 호산나교회



조일구 목사
•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김규동 목사
• 요한동경교회



승규석 목사
• 차세대 연구소 소장

제27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등록 신청서

| | | | | |
|-------|------|----|---------|----|
| 이름 | 한글 | 영어 | 직분 | 성별 |
| 이름 | 한글 | 영어 | 직분 | 성별 |
| 교회 이름 | 한글 | | | |
| | 영어 | | | |
| 교회 주소 | | | | |
| 전화 | Fax. | | E-mail. | |
| 사택 주소 | | | | |
| 전화 | Fax. | | E-mail. | |

()와 같은 방을 쓰기원함

관광에 참여하기 원함

| | | |
|-----|-----|--|
| 등록금 | 목회자 | |
| X명 | 평신도 | |
| 소계 | | |
| 선금 | CK# | |
| 잔금 | CK# | |

본인은 제27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주후 20 년 월 일

서명: _____

* 위의 영어 명은 반드시 여권 이름으로 써 주십시오
* Pay to the order 는 The Christian Press 로 써주시면 됩니다.
* 등록 (100불 이상 등록금을 보내신 분) 즉시 등록 접수증을 보내드립니다.
* 전금을 등록만기일 이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등록 취소 시에는 50불을 제외한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 일 시 2012년 4월 17일(화) ~ 4월 20일(금)

▶ 세미나장소: 한국 금란교회 ▶ 숙소: 워커힐 호텔

- **참석대상** 1) 현재 시무중인 한인 목회자, 선교사, 전도사 부부
2) 평신도 지도자(장로, 권사, 집사)
- **온라인등록** 웹사이트 www.chpress.net 를 방문하셔서 개인정보와 교회정보를 입력하신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등록금**
목사·선교사: 200달러(24만원) | 평신도지도자: 200달러(24만원)
한국현지등록: 50불(6만원) (숙박제외) (*선착순 마감)
- **연락처**
NY: 노선희 전도사 TEL.(718)886-4040, FAX.(718)358-7789, sunnykapcq@yahoo.co.kr
LA: 이성자 전도사 TEL.(323)665-0009, FAX.(323)665-0046, presssj@hanmail.net
한국 등록처: 박종인 장로 (금란교회 사무국장) TEL.(02)490-7000, FAX.(02)436-5770
- 등록금 계좌번호: 하나은행 (279-910002-91105), 예금주: 금란교회, 입금자명 옆에(세미나)를 기재해 주세요.
- **항공권/관광 문의**
- 담당자: 유 여행사 (718)463-9500 / Mrs. 유Miss 진 / yootravel@hot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